도시재생에
대하여

다시, 강릉

강릉에서
바라보다.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창간호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동네

뭐하고노나? 재미나게 놀자!

주민에서 도시재생전문가로

함께 한 사람들

강릉시도시재생
지원센터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남옥

기획/집필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김예원, 전초록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0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박상언

인사말

강릉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19년 1월 29일 개소하였습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 힘을 받아 저희 센터 직원들은 밤을 낮 삼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말했을까요?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만드는 사업이고 주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은 사람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작이 이미 커져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도시재생 소식지는 인턴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10여년 넘게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한결같이 드는 생각은 젊은 활력입니다. 사람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나이가 들고 도시도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든 도시에는 사업체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도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도시는 더욱 쇠락해져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에는 젊은 활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소식지가 젊은 인턴들과 함께 만들어 낸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을 배우고자 우리 지역을 찾은 젊은 인턴들이 이 소식지를 만들면서 우리의 도시를 알아가고 우리의 도시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의 싹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 소식지를 통하여 보시는 분들 모두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람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은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줄 때 그 가치는 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시작이 이미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남옥

목차

1부 1.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동네(강릉시도시재생 로드맵 구축사업)

00. 월별활동 8

01. '다 같이 돌자 돌네 열바퀴' 프로젝트 11

02. 도시재생 거버넌스 44

02-1.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사업 거버넌스 44

02-2. 도시재생 관련 기관 거버넌스 56

2부 2. 뭐하고노나? 재미나게 놀자!(도시재생 활성화)

00. 월별활동 62

01. 소규모재생사업 65

02. 주민공모사업 68

3. 주민에서 도시재생전문가로(도시재생 교육)

00. 월별활동 72

01. 도시재생대학 74

02. 전문가양성 78

3부 함께 한 사람들

인터뷰 80

사업추진위원단 조태동 교수

사업추진위원단 김남대 국장

주민공모사업 마실테라 최은정 대표

주민제안사업 고동환 대표

소규모재생사업 마실와 김남희 대표

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작가

인턴 류지수, 박상언, 이석찬 인턴

도시재생에 대하여.

여는 글

강릉형 도시재생사업 로드맵 구축사업은 정말 대단하고 거창한 로드맵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진정 대단하고 진정 거창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우리 동네 사람들 정서에 맞는 것
우리 힘으로 이끌어가고 변화를 느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은 그 로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단하고 거창하게 만드는 네 가지 힘.

그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심이 지역의 관심으로 마음이 모아집니다. 두 번째가 주민참여입니다. 모아진 마음과 지역의 관심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주민참여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올바르게 주장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참여는 교육과 소통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가 거버넌스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민.관 협력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천천히 가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는 점들이 선이되고 면이된다면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의 미래는 빛으로 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다돌동]은 실천적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대단함을 위한 시작점은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기 위한 기획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돌동" 기획의 의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진 자산들, 우리가 가진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아쉬운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재능 봉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돌동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워크숍에서 포럼, 그리고 사업추진까지 이어지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쓰레기문제를 위한 쓰돌동과 똑떼기 버려요!, 어둡고 좁은 골목문제 해결를 위한 밤돌동과 안심골목사업은 작게나마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작은 실천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지속가능협의회와 자원순환본부, 강원일보, 문화그룹 스콘 그리고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추진위원회, 강릉시 도시재생과가 함께한 거버넌스사업입니다.

우리의 삶을 대단하고 거창하게 만드는 네 가지 힘.

1부

도시재생 로드맵 구축 월별 활동.

01월

17일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추진위원회의 개최
20일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강릉문화재단 라운드테이블 개최
30일 문화도시재생사업 네트워크 창의파티 "줌인의 밥한끼" 참여

02월

8일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강릉문화재단 주문진 등대 마을 현장답사
10일~24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장학습 사전준비회의 4회 진행

03월

3일, 24일 로드맵 구축 현장학습 및 워크숍 탐방코스와 기록화 방안 논의
16일 2020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거버넌스(파랑달)
23일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 LINC+ 사업단 사업 연계 및 협력방안 논의

04월

2일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 정보교류
8일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관련 정보공유

05월

6일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추진 위원회의 개최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프로젝트 설명 및 논의
11일 동호지구 및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 및 정보공유
13일 홍제동 1코스 탐사 및 워크숍
15일 제주 신산머루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 및 정보공유
15일~16일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선진지 견학 사전답사 진행
19일 강원도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20일 홍제동 2코스 탐사 및 워크숍 가톨릭 관동대학교 링크+ 사업단 정보공유
27일 홍제동 3코스 탐사 및 워크숍
30일 홍제동 포럼 개최

06월

1일 의왕시도시재생과 성과 및 정보공유
2일 강릉원주대학교 링크+ 사업단-협동조합 플랫폼 MOU체결
3일, 10일 강남동 1·2코스 탐사 및 워크숍
11일 동호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현황 정보교류 삼척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정보교류
12일 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 및 정보공유
17일 성덕동 부기촌 일대 탐사 및 워크숍
24일 강남동·성덕동 포럼 개최
29일~30일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선진지 견학 개최
30일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현황 정보교류

07월

8일,15일,22일 포남동 1·2·3코스 탐사 및 워크숍
14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링크+ 사업단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혁신 협의체 유관기관 간담회
29일 포남동 포럼 개최

08월

5일 교2동 탐사 및 워크숍
12일 주문진 등대마을 탐사 및 워크숍
13일, 24일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의

09월

2일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
4일 주문진 불당골 탐사 및 워크숍
16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링크+ 사업단 네트워크 협력회의
16일 교2동, 주문진(등대마을,불당골)포럼 개최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현장탐사 및 워크숍(내곡동)
23일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현장탐사 및 워크숍(강남동)

10월

7일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현장탐사 및 워크숍(강남동)

11월

14일 플로킹을 접목한 주문진 새뜰마을사업 불당골 답사 운영

01.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동네

강릉시도시재생 로드맵 구축사업

강릉시의 도시재생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 협력 거버넌스, 공동체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의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추진 위원회, 문화그룹 스콘과 함께 직접 마을을 돌아보고 워크샵을 열어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샵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행정, 공학, 예술 전문가의 눈으로 도시 쇠퇴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가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자원 발굴 및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공유가 이루어졌다. 워 에서 논의 한 내용을 정리 및 발표하는 성과공유회 형식의 포럼(다돌동 토크콘서트)이 매달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 소식지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강릉시 도시재생 로드맵 구축의 아카이브로 활용될 계획이다.

01.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다돌동은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강릉' 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순서인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마을탐방 프로젝트로 강릉형 도시재생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학습 및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습득한 지역정보를 정리 및 기록하였습니다.

사업계획

기간
2020. 5. ~ 2020. 11.

1)현장탐방
- 1차:홍제동, 강남동, 성덕동(부기촌), 포남동
- 2차:교2동, 주문진

2)워크숍
- 투어 후 토크콘서트
- 지역현안 발제 및 의견 수렴

3)포럼
- 동별 탐방완료 후 종합 포럼 진행

4)인터뷰
- 주민 및 관계자

5)영상 및 사진
- 동네 및 사업추진 기록화

6)마을지
- 마을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지 제작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홍제동이야기 1편

지도 홍제동 골말 일원

코스 해람중학교 - 강릉초- 발락고개길- 골말길- 명주로 강릉교회- 자활센터- 갈바리의원- 서부시장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5월 13일(수)

장소
현장학습(홍제동 1코스 일원)

코스
해람중-강릉초-발락고개길-골말길-명주로-강릉교회-자활센터-갈바리의원-서부시장

참여자
총16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홍제동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지역관심 일으키기
- 지역 정체성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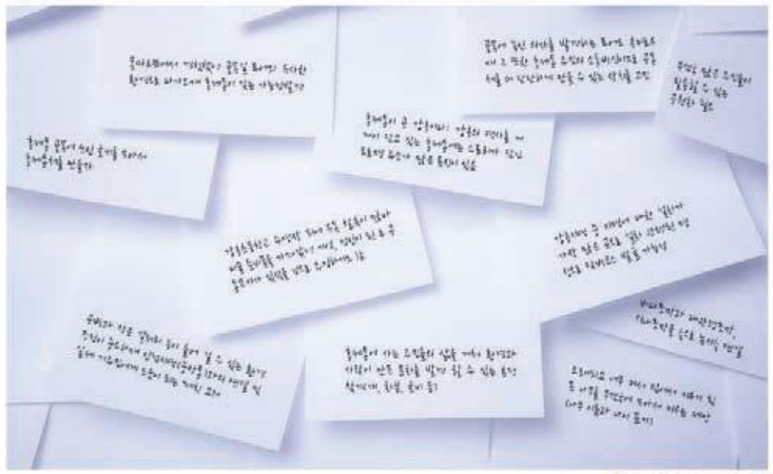
프로젝트 1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5월 13일(수) 14:00~18:00	현장학습(홍제동 1코스 일원) 워크숍(우방)	총 16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홍제동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지역관심 일으키기 ③ 지역 정체성 찾기

홍제동 자원

- 홍제동 지명 유래: 조선시대 국영 여관 및 구휼기관 홍제원(洪濟院)에서 유래
- 강릉초등학교(1896~), 해람중학교(1951~) - 화교소학교(1968~) 교육기관 다수 존립
- 좁은 마당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의 모습 인상적
- 발락고개 유래: 강릉최씨 시조 최문한의 말이 언못에 뛰어들었다가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 쑥두드렁이에서 쑥을 먹고 발락고개를 발락발락 넘어 코풀재에서 코를 풀고 북바위에서 북을 치고 북밀에서 죽었다는 설화 속 장소
- 영동 유일 도살장: 발락고개 뒤편 농지개량조합 자리, 축혼비가 남아있음
- 무선국: 1939년 설치, 현재 사유지이며 주민들이 농사 짓고 있음. 강릉시가 잘보이는 뷰포인트. 스콘은 그곳을 비밀의 화원이라고 칭함
- 골말: 골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풍수지리로 옥녀금반형 명당
- 명주로78번길 24-5: 다다미방이 그대로 남아있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일본식 가옥, 당시 영림소장 집으로 1940년에 완공되었을 것으로 추정. 홍제동에는 일본식 가옥과 중국식 가옥과 한국식 가옥이 혼재.
- 명주로61번길 공터: 골목길 끝에 위치한 공터로 교동 일대가 조망되는 곳, 누군가 설치한 사이클 운동기구가 인상적임. 공용으로 썼던 화장실 존재.
- 쓰레기문제는 어디든 해결해야 할 과제
- 전진인쇄사: 대를 이어 인쇄업 유지, 강릉 유일의 기밀문서 인쇄를 허가받은 업체
- 갈바리의원: 1965년에 개원한 아시아 최초 호스피스 병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소속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 시
5월 13일(수)

주 제
홍제동 색깔찾기 1

주요내용
- 홍제동 내 공방과 작은 갤러리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옛 무선국 자리 공원화 필요성 제기
- 실제 거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 마련
- 녹지, 문화, 흔적(낙서), 설화 등의 켜를 만들어 자료 구축이 중요
- 홍제동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거쳐 환경과 사람이 만든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흔적 찾기(개, 화분, 글씨 등)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홍제동이야기 2편

지도 홍제동 새냉이골 일원

코스 홍제동 푸르지오 부근 공영주차장 - 부산국수공장일대(홍제로53번길 9-5) - 카페살림 - 홈마트 - 홍제로85번길 - 워싱턴모텔 - 터미널오거리 - 정현식당 - 올리비아모텔 뒤편 - 청송 - 새냉이쉼표 - 새냉이길 힐스테이트 쪽문 부근 - 다이소 - 홍제로19번길 - 홍제연립 - 쿠켄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5월 20일(수)

장소
현장학습(홍제동 2코스 일원)

코스
홍제동 푸르지오 부근 공영주차장-부산국수공장일대(홍제로53번길9-5)-카페살림-홈마트-홍제로85번길-워싱턴모텔-터미널오거리-정현식당-올리비아모텔뒤편-청송-새냉이쉼표-새냉이길 힐스테이트 쪽문 부근-다이소-홍제로19번길-홍제연립-쿠켄

참여자
총15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홍제동 2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해당지역 상권체감
- 터미널 지역 환경조사
- 주거형태, 상권, 터미널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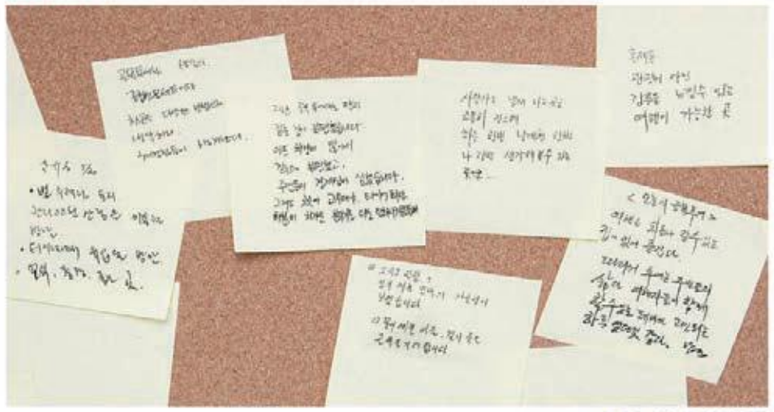
프로젝트 2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5월 20일(수) 14:00~18:00	현장학습(홍제동 2코스 일원) 워크숍(시중음식점)	총 15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홍제동 2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해당지역 상권체감 ③ 터미널 지역 환경조사 ④ 주거형태, 상권, 터미널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홍제동 자원

- 사람이 살지 않는 넓은 구릉지에 풀이 많이 자랐다고 전해지는 새냉이골 중심 탐방
- 자투리 땅을 활용한 정원 가꾸기 사업 필요해 보이므로 지역에 맞는 수종찾기
- 홍제동 1코스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2코스이므로 둘의 조화 고려
- 터미널에서 내려 갈피를 못 잡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판 등 홍보전략 필요
- 향후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처마선의 미적 디자인 보완이 진행되면 좋겠음
- 터미널 앞 주도로에서 홍제동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재구성 해야함
- 빈집현황파악이 필요
- 지명에 대한 야화가 많은 동네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 아파트와 주거단지와이 경계심 및 이질적 느낌이 컸으며 소통의 방법 찾기가 필요함
- 홍제동 2코스는 걷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느낌(도로정비, 보차도 분리필요)
- 거주민과 외부 관광객의 이원화 방향으로 홍제동을 바라볼 필요
- 마을기업형 게스트 하우스 운영으로 정보제공, 일자리창출, 골목투어 발굴 등
- 자투리땅을 활용한 꽃심기 활동은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
- 홍제동에 이미 자생하고 있는 철쭉을 바탕으로 계획해도 좋을 듯, 예를 들어 철쭉종은 120여종으로 홍제동의 상징적 꽃으로 스토리텔링하고 단오 때 피는 꽃이므로 단오제와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해봄직 함
- 한달살이 프로그램으로 단체골목투어 코스를 만들기보다 개별적으로 강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의자, 포토존 등을 설치
- 주거형태 삶의 모습 그대로 남기고 생활편익에 치중해야 함(주차장, 조경 등)
- 화분, 정원 가꾸기와 더불어 집집마다 담 사이 거리가 좁아 담장허물기 사업 시 효과 증대
- 공제(公堤): 흙베리 아래부터 강릉경찰서 남문파출소 위쪽을 말한다. 조선 선조 때 강릉부사 김첨경(金添慶,강릉부사 1561.5~1565.5)이 남대천이 자주 범람 하여 들을 메워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므로 넘치는 물을 막기 위해 남대천 제방을 쌓아서 마을을 잘살게 만들었다. 김공(金公,김첨경강릉부사를 높여 부른말)이 만든 제방이라 하여 공제라 함
- 홍제동 한신아파트 부근: 과거 약초가 많이 나와서 채약골이라 불림
- 홍제연립: 복층 구조로 대관령 조망권을 갖고 있는 당시 고급 빌라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5월 20일(수)

주제
홍제동 색깔찾기 2

주요내용
- 자투리 땅을 활용한 정원 가꾸기 사업 필요
- 터미널 주변 안내판 설치 등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전략 필요
- 지명에 대한 야화가 많은 동네로 그것을 바탕으로 마을 스토리텔링 마련
-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기업형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정보제공, 일자리창출, 골목투어 발굴
- 자투리 땅을 활용한 꽃심기 활동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홍제동이야기 3편

지도 홍제동 주민센터 일원

코스 쿠켄주차장-삼계사-경방댁-소나무약국-홍제주민센터-버드나무브루어리-홍제안길-쿠켄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5월 27일(수)

장소
현장학습(홍제동 3코스 일원)

코스
쿠켄주차장-삼계사-경방댁-소나무약국-홍제주민센터-버드나무브루어리-홍제안길-쿠켄

참여자
총15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새냉이골 중심 탐방
- 홍제동 3코스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해당지역 공공기관 환경조사
- 홍제동 3코스 주택 현황 파악
-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시도
- 삼계사, 경방댁, 국사여성황사, 빨래터, 탁주공장터 등 문화적 자원 파악

홍제동이야기 3편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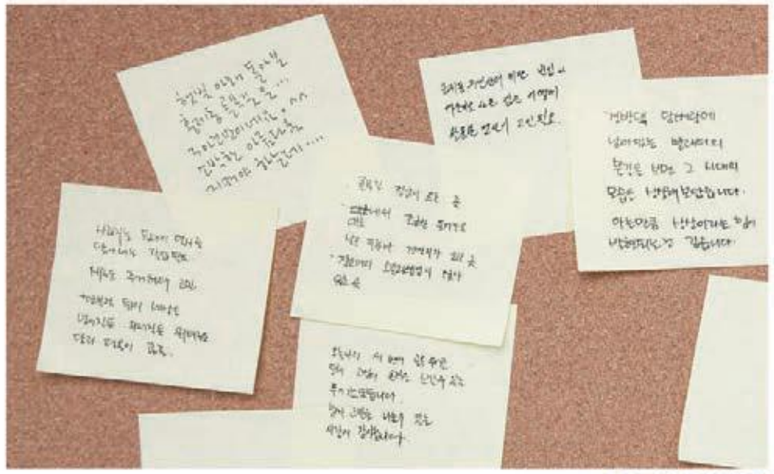
프로젝트 3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5월 27일(수) 14:00~ 18:00	현장학습(홍제동 3코스 일원) 워크숍(시중음식점)	총 15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홍제동 3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해당지역 공공기관 환경조사 ③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홍제동 자원

- 홍제동의 골목길은 빈집이 많으나 살기 불편해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 경방댁, 탁주공장 등 동네의 역사를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
- 삼개사는 천지인을 기본으로 하며 금학동에서 현재 홍제동으로 이전 (천태종)
- 도시재생을 계기로 강릉시의 디자인, 조명등의 요소를 고민하고 움직이는 방안마련
- 홍제동 삼익아파트 근처의 쿠켄은 대중음악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지어진 곳이었으나 현재는 처음 의도와 달리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씨처녀가 물려간 자리라는 설화가 있음
- 홍제동 탐방을 통해 다시한번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주민주도까지 행정, 예산 등 촘촘한 교육과 파트너십 필요
- 빈집현황 및 1인가구 파악, 지역거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거주형태 제시
- 크래프트 비어 스피릿을 잘 이어가는 버드나무 브루어리처럼 홍제동의 다양한 컨텐츠를 네트워크하여 주민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생태계 마련
-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주거공동체 필요
- 스치듯 지나 간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니 많은 이야기가 담긴 동네가 됨.
- 강릉을 내려와 만나는 첫 동네로 홍제동을 시련을 견뎌 낼수 있는 치유의 지역으로 어필하는 컨텐츠를 개발
-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낸 홍제동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고 진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큼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5월 27일(수)

주제
홍제동 색깔찾기 3

주요내용
- 주거형태는 유지하고 생활편익에 치중(주차장, 조경 등)
- 홍제동의 동네 역사 아카이브 마련 필요
-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빈집이 많으나 생활인프라의 부족으로 수요가 없음

홍제동 포럼 개최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토크콘서트'

일시
5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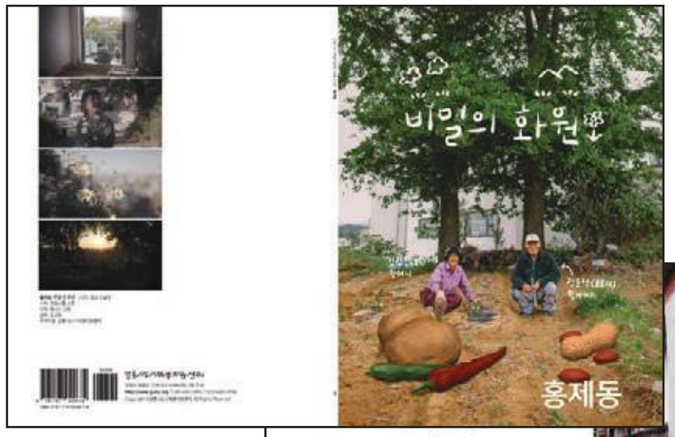
장소
서부시장 오방

참석인원
40여명(강릉시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위원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 구성원, 문화그룹 스콘, 강릉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대학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수강생 등)

주요내용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프로젝트 '홍제동 이야기' 총정리1 (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 문화기획가가 만난 홍제동의 사람과 풍경 발제 (문화그룹 문화그룹 스콘 송성진)
- '홍제동을 고하다' 발제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추진위원회 고기은)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홍제동이야기' 총정리2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남옥)
- 정보공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운영

영상

홍제동 '비밀의 화원'
6.25.목
일제 강점기에 설치되었던 홍제동 강릉무선국이 있던 빈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아이가 버려진 화분을 주워와 다시 숲에 심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을 형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마을소식지

홍제동 비밀의화원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강남동이야기 1편

지도

남산공원, 교육청 일원

강남동1코스 단오제전수교육관 - 남산오성정 - 남산공원 - 남산길 - 안땔길 - 단오장길 - 새마을금고 - 노암동길 - 슈퍼딩거 - 서일아파트 - 교육청 - 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6월 3일(수)

장소
현장학습(강남동 1코스 일원)

코스
단오제전수교육관-남산오성정-남산공원-남산길-안땔길-단오장길-새마을금고-노암동길-슈퍼딩거-서일아파트-교육청-워크숍

참여자
총14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강남동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 남산근린공원일원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혼재 원인파악
- 경사지로 인한 단독주택의 주거환경파악
- 보행 및 차량동선의 관계
- 공동체 환경 파악

강남동이야기 1편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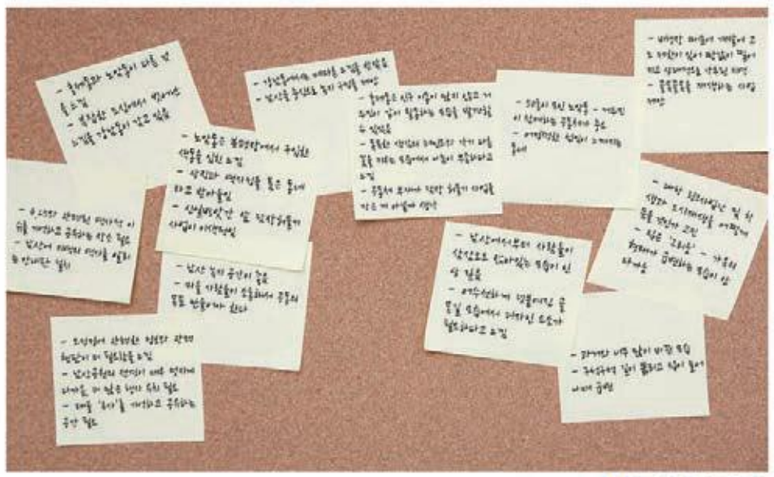
프로젝트 1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6월 3일(수) 14:00~18:00	현장학습(강남동 1코스 일원) 워크숍(강남동 소재 카페)	총 14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강남동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지역관심 일으키기 ③ 지역 정체성 찾기

강남동 자원

- 단오제전수교육관: 공설운동장 자리, 농상전 관람 명당
- 오성정 : 1974년 9월 9일 강원유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 1627년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나 현재 건물은 1927년 정묘생 동갑계에서 강릉 객사 일부를 옮겨서 지었음 (일제시대 일본이 객사를 허물면서 나온 자재를 매입)
- 남산공원 : 도심 속 공원과 조경이 갖는 중요성
- 안땔길 : 진재등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들이 반달 같이 생겼는데, 반달 형상의 안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안달이 되었다가 안땔로 변천
- 신일방앗간 : 옛 방아 기계 그대로 보존
- 새마을금고 : 태풍'루사' 피해 지역, 강릉고 학생의 수요로 자전거 가게가 많았음
- 슈퍼딩거 : 목욕탕을 카페로 개조
- 서일아파트 : 아파트와 연립의 경계(20가구 기준)에서 1가구를 상가로 개조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6월 3일(수)

주제
강남동 색깔찾기1

주요내용
- 단오행사가 주체적으로 진행되는 노암동의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동네에 단오의 아이덴티티를 연계한 디자인 필요
- 비행장 소음으로 건축물의 자유로운 개발이 어려운 점을 역활용할 방안
- 주택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집은 그리움이라는 기억에 기인하여 학생들과 연계
- 남산공원 인근 주민분들의 일상적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성화방안 마련
- 오성정과 같은 노암동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는 표식을 확대하여 설치
- 재난을 통해 변화된 동네의 이야기를 기록화하고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강남동이야기 2편

지도 강남동 월화정 일원

강남동2코스 노가니길 - 원약국 - 노암시영아파트 - 월화정 - 월화거리 - 노암터널 - 부흥마을 - 최근배가옥 - 김윤기가옥 - 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6월 10일(수)

장소
현장학습(강남동 2코스 일원)

코스
노가니길-원약국-노암시영아파트-월화정-월화거리-노암터널-부흥마을-최근배가옥-김윤기가옥-워크숍

참여자
총16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강남동 2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 노암터널의 사업현황 및 활용방안
- 월화거리의 폐철교 실태
- 공동체 환경 파악

강남동이야기 2편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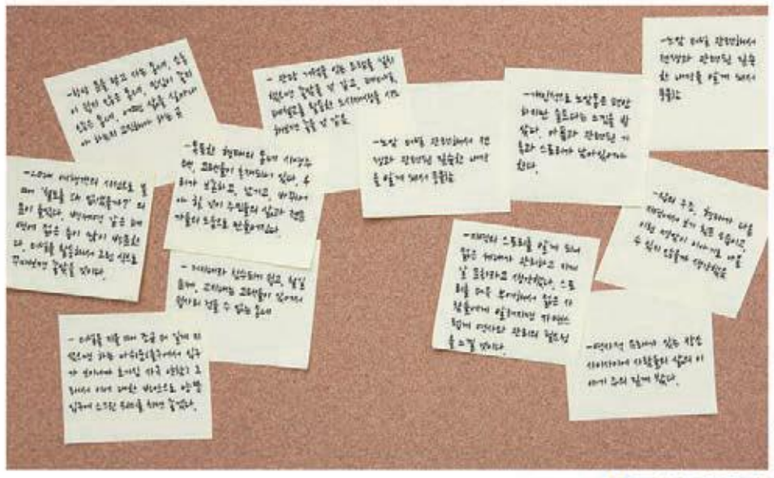
프로젝트 2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6월 10일(수) 14:00~18:00	현장학습(강남동 2코스 일원) 워크숍(사중음식점)	총 16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강남동 2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③ 노암터널의 사업현황 및 활용방안 ④ 월화거리의 폐철교 실태 ⑤ 공동체 환경 파악

강남동 자원

- 월화정 : 연화부인과 무월랑의 설화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2004년에 복원됐다.
- 강릉 사투리 : 노가니길, 앤땜길 등 강릉 사투리의 원고장이자 사투리 경연대회가 시작된 장소이다.
- 시영주택 : 1970년 완공된 시영주택으로 남대천 잠수교 남쪽 골에 있다. 남대천 범람시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
- 노암 터널 : 6·25전쟁 당시 북한군 패잔병들에 의해 100여명의 반공인사를 몰아넣고 학살한 아픈 역사를 지닌 터널로 과거 기차가 다니던 폐터널이다.
- 최근배 가옥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5호로 등재되어 있으며, 단아하고 소박한 멋이 풍기는 가옥으로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 근대적 요소인 신방 등이 첨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 김윤기 가옥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8호로 등재되어 있으며, 강릉에서는 선교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집으로, 6·25전쟁 때는 학교로 사용하였으며, 조선 정조 때 홍국영이 유배된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6월 10일(수)

주제
강남동 색깔찾기2

주요내용
- 면적 구심축 등 도시재생이 확산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지역에 집중하여 계획
- 노암동의 폐철교, 폐터널을 활용한 도시재생 계획 필요
- 노암동과 주택에 사용한 독특한 색과 배치, 그러한 명암들이 다양한 이야기로 나올 듯
- 노암터널의 아픔을 달래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터널 아래 용출수를 활용한 스크린 워터나 노천카페 등 활용 방안 마련
- 자연이 잘 남아있는 곳으로 개발의 남용을 막고 녹지의 조화를 고려
- 역사성, 상징성, 조형물 등의 조화가 필요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성덕동이야기 3편

지도 성덕동 부기촌 일원

성덕동3코스 부기촌 골목 일대 (삼익빌라집결- 부기길 16번길-강중길20번 -쉼터- 강중길14번길-부기길-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6월 17일(수)

장소
현장학습(성덕동 3코스 일원)

코스
부기촌 골목 일대(삼익빌라집결-부기길16번길-강중길20번-쉼터-강중길14번길-부기길-워크숍)

참여자
총13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성덕동 3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마을개선사업의 현황 및 지역공동체 운영관리 파악
- 지역 정체성 찾기
- 부기촌 거주 환경 파악
- 언덕과 계단 현황
- 새 도로 현황

프로젝트 3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6월 17일(수) 16:00~ 19:00	현장학습(성덕동 3코스 일원) 워크숍(강릉 소재 식당"구겐")	총 13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성덕동 3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지역 정체성 찾기 ③ 부기촌 거주 환경 파악 ④ 언덕과 계단 현황 ⑤ 새 도로 현황

성덕동 자원

▶ 부기촌의 유래 : '부기촌'에 얽힌 유래는 정설이 없이 다양하다.

① 옛날 이곳이 노이었다는 설.
염부일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혼자 힘으로 논을 메워 마을을 만들었다고 함.
그 후 사람들은 이곳을 '부를 일으키는 신흥 마을'이라는 뜻에서 '부기촌'이라고 불렀다고 함.

② 원래 과수원이었다는 설.
1970년대 초 강릉이 도시화 되면서 과수원이던 이곳에 도시 극빈층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시작됐다는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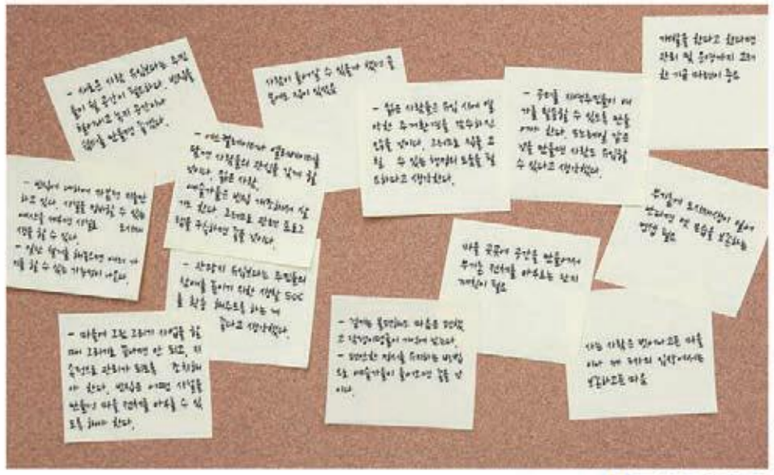
③ 목재소였다는 설.
지역 거부였던 김부기(金副起)라는 목재상이 이곳에서 커다란 목재소를 운영했다고 하여 부기촌이라고 불렀다고 함.
※ '부귀촌(副貴村)'이라는 설도 있음.

▶ '성덕(城德)'은 1920년에 성남면(城南面)과 덕방면(德方面)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이다. 성덕동(城德洞)은 과소(過少) 행정동 통합에 따라 1998년 10월 1일 강릉시 조례로 입암동·병산동·학동·남항진동·두산동·청량동을 합쳐 만든 행정동이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강릉시 행정동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다.
'부기촌'은 이 가운데 성덕동 1~4통을 지칭하는 마을이다. 거주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0%에 육박하고 빈집이 많아 마을 개선사업이 시급한 곳으로 꼽힘

▶ 2015년부터 마을에 대한 개선사업이 시작되어 담장 벽화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폭 6m, 길이 95m 도로 개설 및 급경사 계단 정비, 언덕 도로 핸드레일 설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의 확대가 필요

▶ 2017년 강릉시에서 부기촌 재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탈락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6월 10일(수)

주제
강남동 색깔찾기3

주요내용
- 산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네로 가파른 계단이 산재되어 있음
- 빈집이 많고 주거지도 안전에 미약함
- 거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부족
- 성덕동만의 스카이라인, 스케일을 잘 보존
- 동네의 진입여건과 마을 활성화에 초점
- 성덕동 부기촌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0%에 육박하고 빈집이 많아 마을 개선사업이 시급한 곳

강남동·성덕동 포럼 개최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토크 콘서트'

일시
6월 24일(수)

장소
서부시장 오방

참석인원
29명(강릉시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위원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 문화그룹 스콘, 강릉시 도시재생과 등)

주요내용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강남동·성덕동(부기촌)'이야기 총정리(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 '강남동을 말하다'발제(문화그룹 스콘 김나홈)
- '성덕동 부기촌 탐사 후기' 발제(강릉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위원회 최영순)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강남동·성덕동(부기촌)' 이야기 총정리(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남옥)
- 정보공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운영

영상

강남동, 성덕동 '남쪽기억'_9.2.수
태풍루사, 노암터널, 강릉농상전, 남산공원 등 강남동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지역자원들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강남동 주민이 기억하는 남쪽 기억 그리고 다같이 꿈꾸는 희망을 표현했다.

마을소식지

강남동(남쪽기억)
성덕동(부기촌 숨은그림찾기)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포남동이야기 1편

지도 포남2동 일원

코스 ①동인병원주차장앞 집결 ②포남초등학교 ③보래미길 ④새솔아파트 ⑤동명중학교 ⑥포남동거울공원일대 ⑦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7월 8일(수)

장소
현장학습(포남동 1코스 일원)

코스
동인병원주차장앞 집결-포남초등학교-보래미길-새솔아파트-동명중학교-포남동거울공원일대-워크숍

참여자
총11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포남동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지역구조와 산업생태의 이해
- 포남동의 도시계획을 통한 시대적 상황 파악
- 포남2동의 자원파악(빈집, 가로수,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

프로젝트 1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7월 8일(수) 16:00~ 20:00	현장학습(포남동 1코스 일원) 워크숍(시중음식점)	총 11명 (강릉시도시재생과,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포남동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지역구조와 산업생태의 이해 ③ 포남동의 도시계획을 통한 시대적 상황 파악 ④ 포남2동의 자원파악 (빈집, 가로수,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

포남동 자원

▶ 포남동 지명 유래: 경포 남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포남(浦南)'이라고 하나, 포남동의 옛 이름이 보람이로 '포남'은 '보람이'를 한자화한 음이다. 보람이는 '보다(見)+남(南)'라는 말로 '남쪽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을'이라는 뜻

▶ 형성: 포남동은 원래 강릉군 북일리면 지역으로 1914년에 운곡리(雲谷里), 대창리(大昌里)와 남일리면의 수문리(水門里) 일부를 합하여 군내면에 편입하였다가, 1955년 9월 1일에 강릉시로 될 때 리(里)가 동(洞)으로 되었다.

▶ 위치와 교통: 포남2동은 북쪽으로 운정동과 초당동, 서쪽으로 교동, 동쪽으로 송정동, 남쪽으로 포남 1동과 접해 있다. 포남2동의 남쪽에는 서에서 동으로 군도 117번이 지나고 있다. 구획 정리 지역으로 도로망은 양호한 편이며 대중교통도 편리함

▶ 자연환경: 강릉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단독 및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1980~1990년대에 신시가지로 변화하였다. 논이나 낮은 구릉지였던 포남동이 시가지화된 것은 도심에서 비교적 가깝고, 주택 단지

▶ 변천: 1970년대 이후부터 1986년까지 포남동 일대 103.8만㎡ 면적에 구획 정리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인구 밀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4년 6월 준공된 송정 택지개발지구 7만 평이 포남동에 편입되면서 1995년 3월 2일 포남동에서 포남1동, 포남2동으로 분동

▶ 현황: 포남2동의 자연 부락으로는 왜가마골(왜가마둔지), 모안이굴, 바둑골, 돈반골(삼전골), 숨골(수무골)이 있었음. 강릉 문화 방송, 강릉시 여성문화센터, 강릉시립 중앙도서관, 강릉동인병원,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KT&G 강릉지점,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출장소, 강릉소방서 119 포남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 기관으로는 포남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경포여자중학교, 동명중학교, 경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 왜가마골(왜가마둔지): 동인병원에서 동명중학교 사이 그 일대로 옛날 이곳에서 기와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 숨골(秀木洞당, 隱洞): 산양동 뒤에 있는 골로 초당과 경계지역으로 옛날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이곳에 숨어있기 좋은 곳이라 하여 지명이 생겼다. 또 수무골(秀木洞)이란 옛날 이골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 숲을 이뤄 아름답게 보였다고 한다. 포남동에 있는 산과 봉우리로는 부엉재, 봉화산, 환선등 딘봉, 춘갑봉이 있었음

▶ 딘봉: 산양동 뒤에 있는 높은 봉으로 초당과 경계지역, 봉을 넘기가 힘이 들었다고 하나, "딘"는 뒤의 방언으로 딘봉은 마을뒤에 있는 봉이란 뜻이다.

▶ 보래미길: 조립식 건물 혼재(빈 땅으로 두면 패널터를 받았던 시대에 지어낸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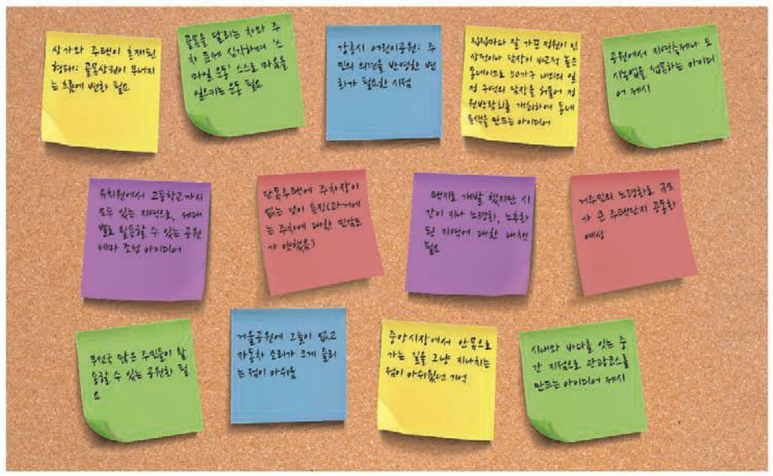
▶ 이전에 경포해변으로 향하는 철길이 있었음

▶ 거울공원은 2009년에 10억 예산으로 지은 공원으로 바닥에 점토블럭을 설치(북사열 방어에 유리)하고 태양광 판넬 활용(태양광 판넬은 사각으로만 출시되므로 디자인적으로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재질을 활용(유지 보수를 고려해야 함))

▶ 워크숍

- 포남동은 실용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짐
- 획일화 된 경관
- 부동산, 건축, 공원 등이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
- 택지의 인구밀도: 저밀도-주택 / 중밀도-연립+주택 / 고밀도-고층아파트
- 개인의 개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문화가 적은 가게를 만들어 냄
- 택지 개발 변천을 볼 수 있는 동네 (교동 택지와 비교)
- 거울공원을 중심으로 곳곳의 공원을 비교하며 공원 문화 발전을 기대
- 공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영업이득을 취하는 업장에 주차비 부과 필요 (공유지의 비극)
- 골목상권 활성화 필요
- 심플한 단지 계획 안 특색 있는 집의 모양 수집
- 산과 같은 자연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
- 복잡한 관계와 권력의 흐름이 얽혀서 만들어진 지역
- 어디에서나 봤던 동네
- 택지 조성 시 계획이 중요함을 느낌
- 거주자 우선 주차 필요
- 책 『낯선 정원에서 엄마를 만나다』 저자 이야기를 통해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하여 생각
- 건축적으로 재밌는 요소가 많은 동네.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7월 8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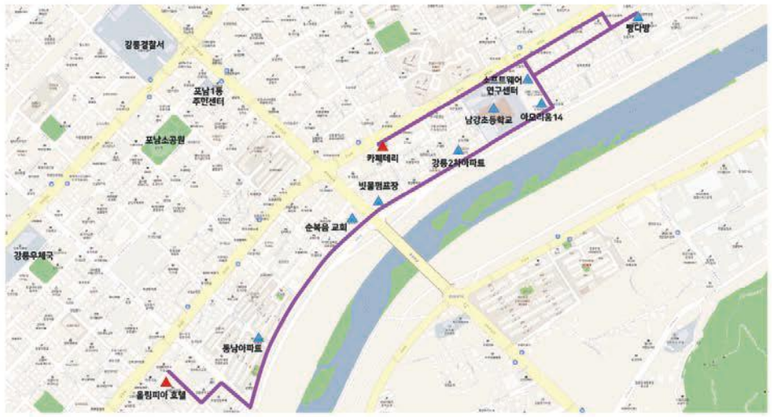
주제
- 포남2동 녹지조성 실태
- 포남2동 색깔찾기

주요내용
- 동명중학교를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화가 예측됨
- 1990년대 계획되고 조성된 지역으로 그 시절의 단지 계획의 인식, 기술, 인구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알 수 있음
-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즉, 도시농업을 고려할 필요
- 공원의 용도를 고려함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시간대, 연령, 직업, 세대 등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활용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포남동이야기 2편

지도 포남동 2코스 일원



코스 올림피아 호텔인근 집결 - 동남아파트- 순복음교회- 빗물펌프장- 강릉2차아파트- 남강초등학교- 아모리움14 - 강릉 소프트웨어융합연구센터 - 빵다방- 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7월 15일(수)

장소
현장학습(포남동 2코스 일원)

코스
올림피아 호텔인근 집결-동남아파트-순복음교회-빗물펌프장-강릉2차아파트-남강초등학교-아모리움14-강릉 소프트웨어융합연구센터-빵다방-워크숍

참여자
총12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 포남동의 다양한 자원 파악 (빈집, 가로수,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
- 포남동 녹지조성현황파악 및 운영실태
- 포남동의 도시계획을 통한 시대적 상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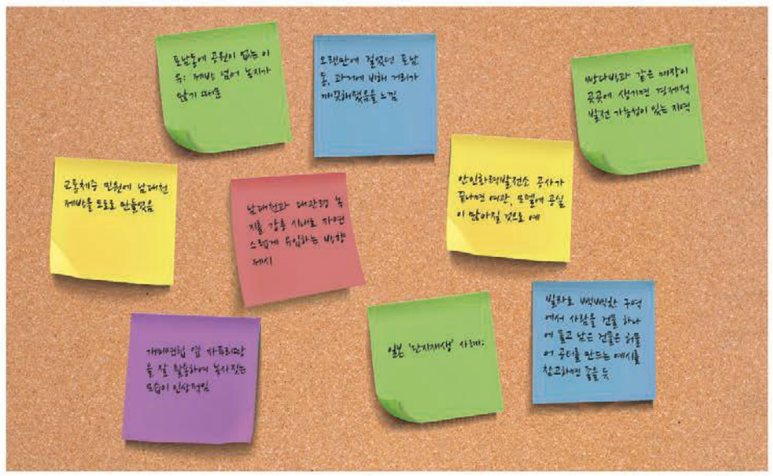
프로젝트 2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7월 15일(수) 16:00 ~ 20:00	현장학습(포남동 2코스 일원) 워크숍(시중음식점)	총 12명 (강릉시도시재생과,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② 포남동의 다양한 자원 파악 (빈집, 가로수,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 ③ 포남동 녹지조성현황파악 및 운영실태 ④ 포남동의 도시계획을 통한 시대적 상황 파악

포남동 자원

- 홍제동과 같이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곳으로 사람이 모여 사는 역사가 오래된 장소
- 관광객이 중앙시장에서 바닷가로 가는 이동하는 중 반드시 지나가는 지역이나 이슈가 없어 머무르지 않는 거리임
- 지역호텔(올림피아호텔)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며, 동해상사, 동진버스, 구터미널의 도로망을 따라 모텔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
-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이 다수 분포되어있으며, 현재 1층은 비어있는 곳이 많아 활용방안이 필요
- 창고형 물류센터 다수 있음, 이에 대한 활용도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포남2 코스는 1코스에 비해 녹지공원이 없는 특성을 보이며 이 그 이유는 남대천의 제방을 따라 녹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
- 예전에 비해 포남동이 많이 깨끗해졌으나 고령화로 인한 공동주택 공동화현상이 나타 날 경우 공간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남대천 제방의 활용 시 현재 차량통행이 많아 잦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활용을 계획 할 경우 일방통행에 대한 고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포남 1코스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공원의 특징임
- 남대천의 물과 녹지를 활용하여 도심으로 끌고오면서 도시농업을 진행하면 지역민의 만족도와 관광객 연계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사업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담보해야 함
- 일본의 단지재생이 떠오르는 장소였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서울 목동에 실시한 시범적 사례가 있음
- 포남2코스는 상업공간이 주가 되며 문화공간이 부재된 장소이므로 도시농업, 트램 등을 활용한 시범적 단지재생사업을 계획해 보면 또 하나의 재생공간 탄생이 기대 됨
- 포남2코스는 주거와 준주거지역의 혼재로 도시의 특성이 불분명하게 나타나며 연립이 많은 지역은 시니어의 기호에 맞는 계발과 아래쪽은 상업시설이 많은 특징을 살려 계발
- 포남2코스는 마치 수용소와 같은 느낌을 받음
- 다들동을 거듭하면서 외형적인 면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제는 각자 개성을 드러내는 대문, 자투리 땅의 활용특징, 발코니에 심어진 꽃의 종류 등 사람에게 관심이 깊어지며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함
- 어울림작은도서관 - 노인 복지시설로 계획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장소
- 순복음교회 주변 - 준주거지역으로 95년 이전에는 숙박시설 가능했음, 동해상사 중점(현 유니클로)이 있어 모텔이 많음
- 포남동은 개발 전 논이 많았던 지역으로 물이 많아 빗물펌프장 설치
- 남강초등학교 - 과거 옥천초등학교의 명성처럼 공부 잘했던 학교로 정평
- 현 강릉제작소 - 포남동사무소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변천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7월 15일(수)

주제
포남2동 색깔찾기 및 활용방안 모색 2

주요내용
- 홍제동과 같이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곳으로 사람이 모여 사는 역사가 오래된 장소
- 관광객이 중앙시장에서 바닷가로 이동하며 반드시 지나가는 지역이나 이슈가 없어 머무르지 않는 거리
- 지역호텔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며, 구 터미널의 도로망을 따라 모텔이 많이 형성
-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이 다수 분포
- 코스에 비해 녹지공원이 없는 특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남대천의 제방을 따라 녹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포남동이야기 3편

지도 포남동 3코스 일원

코스 포남시장 주차장 집결 - 포남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 - 연탄갈비 골목 - 엄지포차 - 어린이 공원 - 강릉목공소(한솔 인테리어) - 남구길 24 - 강일감리교회 - 제 9호 어린이공원 - 세화아파트 - 민들레 재가 복지센터 - 강릉에 살레다 (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7월 22일(수)

장소
현장학습(포남동 3코스 일원)

코스
포남시장 주차장 집결-포남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연탄갈비 골목-엄지포차-어린이공원-강릉목공소(한솔 인테리어)-남구길24-강일감리교회-제9호 어린이공원-세화아파트-민들레 재가복지센터-강릉에 설레다(워크숍)

참여자
총15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마을개선사업의 현황 및 지역공동체 운영관리 파악
- 유휴시설 현황 파악
-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 포남동의 다양한 자원 파악 (빈집, 가로수,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
- 포남동 녹지조성·어린이 공원 현황파악 및 운영실태

포남동이야기 3편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프로젝트 3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7월 22일(수) 16:00~ 20:00	현장학습(포남동 3코스 일원) 워크숍(시중음식점)	총 15명 (강릉시도시재생과,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② 포남동의 다양한 자원 파악 (빈집, 가로수,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 ③ 포남동 녹지조성· 어린이공원 현황파악 및 운영실태

포남동 자원

▶ 포남시장 주차장
- 강릉 포남 더 퍼스트 아파트 신설 예정.
- 포남시장은 1987년도에 신설되었음. 90여 점의 점포가 있었음. 쇠퇴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잃었고, 주차장이 들어섬.
- 그 이전엔 장업 공장이 있어 잠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라고 함. 80년대 도시 계획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사라짐.

=> 옛 기록의 부재, 현재의 모습마저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라질 예정이기에 현재의 모습을 담은 아카이빙이 시급함.

▶ 먹거리 골목
- 80~90년대 저녁 시간대 상권이 활성화된 시기였음. 맛집이 많음.
- 이곳에서 일러진 맛집들이 강릉의 다른 동네로 분점을 내기도 함.
- 연탄불 돼지갈비 음식점이 즐지어진 맛집 골목이기도 함.
-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져 있기도 했음. 하지만 현재는 교동택지 쪽 음식점으로 고객 유입이 늘면서 이곳의 고객 유입을이 많이 낮아진 상황임. 그럼에도 여전히 현지인이 찾는 맛집이 곳곳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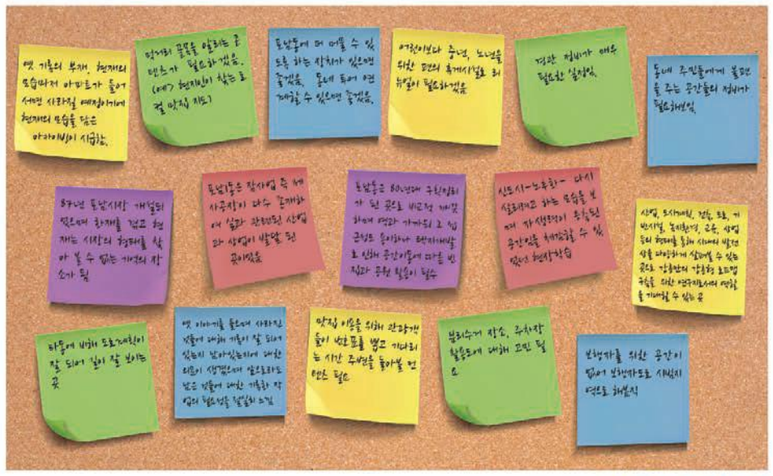
▶ 포남소공원
- 포남소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 조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보다 어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어른을 위한 쉼터로 리뉴얼이 필요하겠음.
- 인근에 엄지네 포장마차 유명 맛집이 있음. 이곳에 유입하는 고객은 많음. 줄서는 맛집임. SNS, 매스컴에 자주 출연한 맛집이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임.
- 택시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많이 보였음.
- 식사 후, 다음 여행지를 정하는 장소이기도 함. 여행 정보를 일려줄 수 있는 안내데스크가 설치돼 있어도 좋을 듯함.

▶ 작은 공원
-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돼 있었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는 공간으로 역할을 함.
- 포남1동의 인구 (10519명 / 2020년 6월 기준) 중 55% 이상 50대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포남1동엔 경로당이 많이 미비한 상황이기도 함. 3개의 경로당이 있는 실정임.

▶ 세화아파트
- 1994년 지어진 주상 복합 건물임. 현재 세대 수 35세대임.
- 주변 경관이 많이 훼손돼 있음. 특히 도로 길가 쪽으로 버려진 주방시설 기구, 가구, 폐자재 등이 널브러져 있어서 정리가 시급해보임. 침수나 강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 남구길 11번길 & 경강로 2223 번길
- 상권 중심 포남동에서 발견한 보석같은 골목길이었음.
- 주택 사이로 공동 텃밭을 가꿈. 그 앞에 의자가 놓여 있어서 거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휴게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함. 사람 냄새나는 골목길. 정겨움을 느낄 수 있음.
-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있기도 함. 하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상황임. 추후 한달살이나 장기 임대 공간으로 계획중이라고 함.
- 골목길의 끝에서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많이 노후화된 건물임. (현재 한진택배 사무실로 사용중임.) 동네주민들에겐 흉물인 공간임.
- 사람은 살고 있으나, 폐기물, 버려진 폐자재들이 쌓여 있는 집이 있음.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7월 22일(수)

주제
포남동 녹지환경 및 색깔찾기

주요내용
- 87년 포남시장이 개설되었으며 화재를 겪고 현재는 시장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됨
- 포남1동은 잠사업 즉 제사공장이 다수 존재하여 실과 관련된 산업과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음
- 80년대 구획정리가 된 곳으로 비교적 깨끗하며 역과 가까워 그 접근성도 용이하나 택지개발로 인해 공간 이동에 따른 빈집과 공원 활용이 필수
- 맛집이 많은 특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필요
-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없어 보행자도로 마련 필요

포남동 포럼 개최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토크콘서트'

일시
7월 29일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오방

참석인원
20여명

주요내용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포남동'이야기 총정리(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 '단지재생 마을 만들기'발제 (문화그룹 스콘 송성진)
- '도시재생&도시농업' 발제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추진 위원회 박순남)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포남동'이야기 총정리(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남옥)
- 정보공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운영

영상

포남동

신도시에 쌓여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주민들

마을소식지

포남동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교2동이야기

지도 교2동 일대

코스 가작다리 - 태극기마을 - 계련당 - 향현사 - 이명고개 - 율곡로 - 샘물터길 - 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8월 5일(수)

장소
현장학습(교2동 일원)

코스
가작다리-태극기마을-계련당-향현사-이명고개-율곡로-샘물터길-워크숍

참여자
총15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 교2동의 다양한 자원 파악 (문화재, 교육환경, 가로수 등)
- 교2동 주거조성현황파악 및 운영실태
- 지역구조와 산업생태의 이해
- 교2동의 도시계획을 통한 시대적 상황 파악

프로젝트 1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8월 5일(수) 16:00~ 20:00	현장학습(교2동 일원) 워크숍(교2동 소재 카페)	총 15명 (강릉시,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자문위원,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주거형태, 공공기관,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 분석 시도 ② 교2동의 다양한 자원 파악 (문화재, 교육환경, 가로수 등) ③ 교2동 주거조성현황파악 및 운영실태

교2동 자원

▶ 교동

강원도 강릉시에 교동이 있다. 향교가 자리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속칭 향교말과 교동은 향교의 위치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같은 맥락의 이름이다. 향교의 그 안에 위치한 명륜당에서 비롯한 학교 이름이라는 점에서, 전통 향교와 연관되고 있다. 이밖에도 강릉상업고등학교 · 강일여자고등학교 · 관동중학교 · 율국중학교 · 교육청 · 도서관 등이 집중되어, 포괄적인 안에서도 교육 기능이 예와 다름없이 지속되고 있다.

▶ 강릉항교

고려의 안무사(安撫使)였던 김승인에 의해서, 화부(花浮)산 밑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홍귀달(洪貴達)은 《중수기》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강릉 풍습이 문학을 숭상하여 그들 자재가 겨우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 향교에서 배우게 했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선비들이 엄숙하고 조용함은 모두 글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 이명고개

이명고개는 강릉 북쪽에서 강릉으로 올 때 통과하게 되는 관문으로, 고려 충숙왕(1294~1339) 때 박중이 중건한 염양사(艶陽寺)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염양사는 조선조 성종 때(1457~1494) 승려들의 횡포가 심하여 나라에서 폐찰시켰다고 한다. 이명고개는 염양사가 있는 고개란 뜻으로 '염양고개'라고 불리었는데 나중에 이명고개로 되었다.

▶ 화부산

마을 한가운데 있는 화부산은 교1동 원댕이재에서 내려온 줄기가 북쪽으로 이어지면서 포남동의 바깥의 춘갑봉을 지나 초당을 거쳐 그 낙맥이 경포로 이어진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부 북쪽 3리에 있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이곳은 강릉시내와 포남·송정의 넓은 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좌청룡·우백호의 산줄기가 감싸 향교와 명륜고등학교를 지었으며, 옛날 이 산에 꽃이 많이 피어 열리시 보면 마치 꽃이 산위에 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하여 화부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

▶ 향현사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강릉 출신 인물 가운데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다. 원래는 1645년(인조 23)에 부사(府使) 강백년(姜柏年)과 전직 관리인 김충각(金忠脚), 김상원(金聲源) 등이 논의하여 향현(鄕賢)들의 행적과 업을 후세(後世)에 전하고자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최치운(崔致雲)·최응현(崔應賢)·박수량(朴遂良)·박공달(朴公達)·최수성(崔壽城)·최운우(崔雲遇)를 모셨고, 1802년(순조 2)에 최수(崔湫)를 더 모셨다. 1808년에 이성무(李成茂)·김윤신(金潤身)·박억추(朴億秋)·김업(金業)·김담(金譚)을 추향(追享)하면서 모두 12현을 모시고 있다.

▶ 강릉항교

고려의 안무사(安撫使)였던 김승인에 의해서, 화부(花浮)산 밑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처음 창건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고려 말기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전적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현재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고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으며,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8월 5일(수)

주제
교2동 젠트리피케이션 및 도시계획

주요내용
- 학교의 교가에도 자주 등장하는 화부산을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
- 좁은 골목이 있으나 개발보다 연구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 사업에 있어 관리가 잘 안된 부분들을 미루어 보아 사후관리까지 고민할 필요 있음
- 교2동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KTX)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방안 고려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주문진 등대마을이야기

지도 주문진 등대마을 일원

코스 주문진등대 - 등대2길 - 등대마을 공동화장실 - 주문진 성황당 - 등대꼬댕이 공원 - 등대1길 - 등대꼬댕이 - 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8월 12일(수)

장소
현장학습
(주문진 등대마을 일원)

코스
주문진등대-등대2길-등대마을 공동화장실-주문진 성황당-등대 꼬댕이공원-등대1길-등대꼬댕이-워크숍

참여자
총16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주문진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등대마을 새뜰마을 사업 결과 답사
- 등대마을 지역 정체성 찾기
- 주문진 새뜰사업을 통한 시대적 상황 파악

프로젝트 2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8월 12일(수) 16:00 ~ 20:00	현장학습(주문진 등대마을 일원) 워크숍(주문진 소재 카페)	총 16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주문진 1섹터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등대마을 새뜰마을 사업 결과 답사 ③ 등대마을 지역 정체성 찾기

주문진 자원

▶ 주문진 등대마을 개요

주문진 등대마을은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낙후된 기반 시설 및 화재, 위생, 안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주문진 등대마을(주문 1리, 주문 5리, 주문 7리)에 새뜰 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인 2015년 3월이다. 사업 대상지는 면적 160,056m2에 주택 577호, 약 100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2018년까지 총 21개 세부 사업에 70억 원을 투자하는 주문진 등대 지구 새뜰 마을 도시재생 사업이다.

▶ 주문진 등대

부산 - 원산 운행 기선의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 1918년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이다. 이러한 벽돌식구조의 등대는 우리나라 등대 건축의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슬레이트 지붕개량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대상자를 2017년 3월 선정 완료하여 이달 중 슬레이트 철거시업과 연계 추진했다.

▶ 소방도로 개선, 소화전 배치

이곳은 도심 속 달동네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히있어 소방도로 또한 시급한 문제였죠. 2017년 6월에는 마을에 빈집들을 매입한 뒤 소방도로를 개설함. 이곳은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였던 곳이었음. 실제 사업 기간인 2016년 3월에 이곳 달동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졌으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 등대마을 공동화장실

화장실이 없거나 열악한 등대마을에서 62가구가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

▶ 주문진 성황당

진이라는 어인이 지킨 점개를 지켜 사망한 뒤 흉어가 들어서 광해군 때 성황당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다시 풍어가 시작되어 현재도 3년마다 풍어제를 지내며 풍어제를 지낼 때 소를 잡는다고 한다. 규모가 점점 줄어강에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소를 잡는다고 함. 2019년도에도 새뜰마을로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 등대꼬댕이 공원

등대 마을의 언덕 꼭대기 공원이라는 의미다. 주문진항이 바로 코앞이라 전망은 등대보다 오히려 뛰어나다. 푸구 뒤편으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백두대간 능선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 등대꼬댕이

등대 마을의 언덕 꼭대기라는 뜻. 2017년 4월 초 공사를 착수해 8월에 준공된 시설로 마을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중심 거점 공간 '등대꼬댕이'. 생선 반건조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카페 같은 것이 있었음.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건강 교실, 치매 예방, 한글 교실, 화재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 및 공동체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8월 12일(수)

주제
- 등대마을 새뜰사업 실태 및 고찰
- 등대마을 개선방안 및 색깔 찾기

주요내용
- 과거 등대마을은 매우 열악했으나 새뜰마을 사업 이후 정비가 잘 됨
- 새뜰마을 사업으로 개선된 상황을 보전하는 것도 앞으로의 도시재생이라고 생각
- 빈 집 정리 및 활용방안 강구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주문진 불당골이야기

지도 주문진 불당골 일원

코스 주문2리 노인회관 집결 - 폐가1(불당골길 38-1) - 소방도로 예정장소 - 폐가2(고바위길 15-2) - 폐가3(평화장) - 불당골1길 26 - 워크숍

활동 사진

현장탐방

일시
9월 2일(수)

장소
현장학습(주문진 불당골 일원)

코스
주문2리 노인회관 집결-폐가1(불당골길 38-1)-소방도로 예정장소-폐가2(고바위길 15-2)-폐가3(평화장)-불당골1길 26

참여자
총17명(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문화그룹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주요내용
- 주문진 불당골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 주거형태 및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인 분석 실시
-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의 현황 및 계획 분석
- 불당골 폐가 현황 파악 및 활용실태 조사
- 주문진 불당골의 도시재생을 통한 변화 예측

주문진 불당골이야기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프로젝트 3강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주요내용
2020년 9월 2일(수) 16:00 ~ 20:00	현장학습(주문진 불당골 일원) 워크숍(주문진 소재 카페)	총 17명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스콘 등 도시재생관계자)	① 주문진 불당골에 대한 지역자원 및 특징 알아보기 ② 주거형태 및 도로망 중심으로 공학적인 분석 실시 ③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의 현황 및 계획 분석 ④ 불당골 폐가 현황 파악 및 활용실태 조사

불당골 자원

▶ 주문진 불당골 개요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터를 잡고 거주했던 곳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국공유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임시방편으로 생활을 해결하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을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 5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 간혹 가난에서 벗어나 살림집을 개보수한 집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집이 들어선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여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까지 경사지에 위치해 위험한 도로 및 화재, 위생, 안전 등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불당골은 2019년에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주택정비, 소방도로 정비, 생활인프라, 휴먼케어사업 등의 생활여건개조사업이 계획 및 시행 중이다.

대상지 면적 65,724m2에 주택 326호, 인구 약 57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4년의 사업기간을 가지며 사업비 65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불당골 골목길

불당골에는 유독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많다. 구릉지에 무분별하게 형성된 거주지이기 때문에 집 위에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시멘트를 붓고 굳혀서 바닥을 형성한 골목길들은 거울철 노인들에게 취약하다. 그러나 주문진 불당골의 마당과 거실은 바로 이 골목길이다.

▶ 슬레이트 지붕개량

새마을 운동 당시 슬레이트 지붕의 개량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50년 넘게 변화가 없다.

▶ 소방도로 계획

이곳은 달동네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어 화재 시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며 현재 새뜰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주거지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마을 위로 벽이 세워져 마을이 위아래로 단절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평화장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정보가 거의 없는 마을의 제일 큰 민박집이며 현재는 폐가로 남아있다. 언제 문을 닫았는지 조차 정보가 없으며 내부는 마치 급하게 나간 듯 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평화장 옥상에 올라서면 주문진 바다와 마을 일대 전망이 내려다보이는 훌륭한 조망점으로써, 그리고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 30가구 이상의 폐가들

불당골은 특히 빈집이 많은 곳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이 떠나면 대체 이주자가 없어 대개는 철거 과정을 밟지만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집이 30가구가 넘는다.

쑥덕쑥덕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워크숍

일시
9월 2일(수)

주제
- 불당골 빈집활용을 위한 지침(발제:김남대)
- 일본사례로 본 빈집활용 방안(발제:송성진)

주요내용
- 한국전쟁 이후 대부분 피난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역사의 아픔을 지닌 장소
- 새마을 운동 당시 바닥과 지붕개량이 이루어졌고 이후 50년간 변화가 없었던 지역
-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집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하수구 및 정화조 정비 필요
- 피난민들의 역사를 테마로 민박집을 형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고려
- 폐가 및 불법건물들을 허물고 그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교2동 및 주문진 포럼 개최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토크콘서트'

일시
9월 16일(토)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석인원
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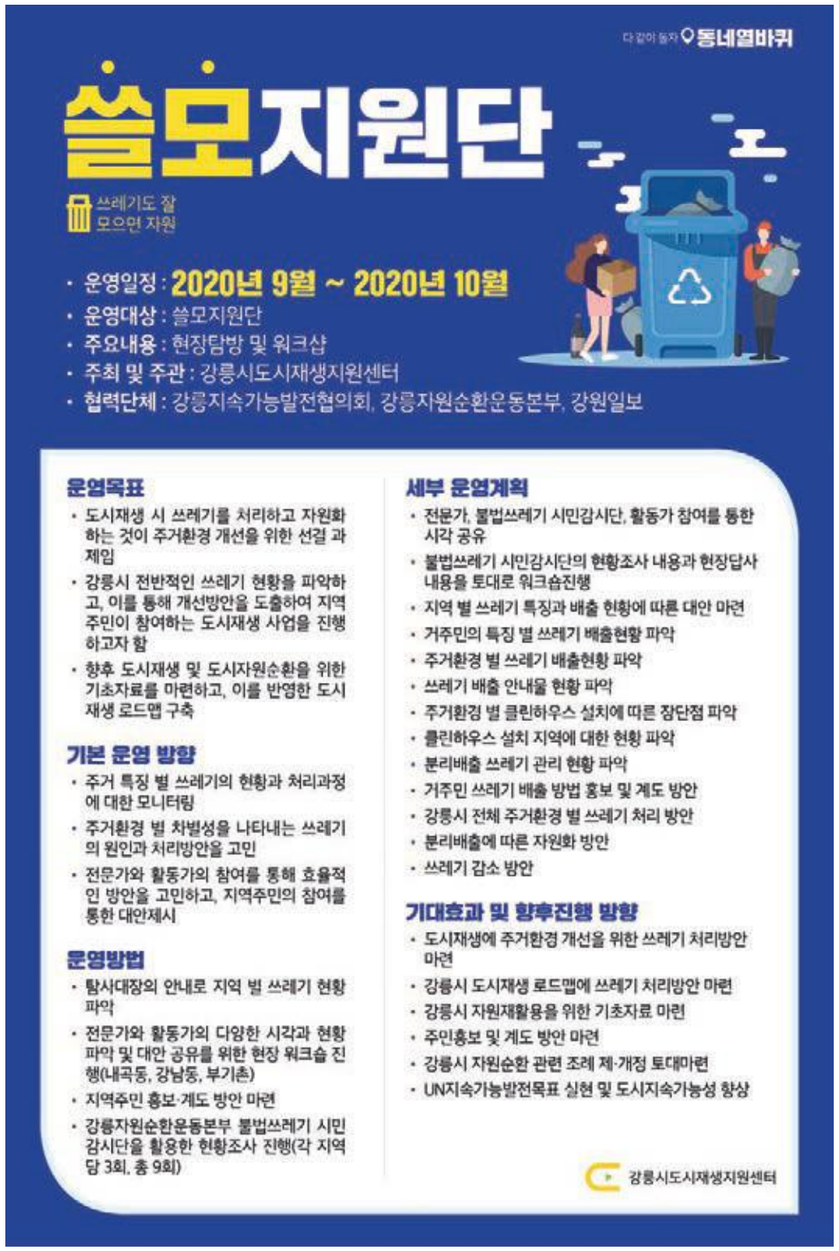
주요내용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교2동 및 주문진' 이야기 총정리(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박상언 인턴/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예준 인턴)
-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제안' 발제(문화그룹 스콘 송성진)
- '에코뮤지엄'발제(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젝트 '교2동 및 주문진' 이야기 총정리(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남옥)
- 정보공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운영

교2동

주문진

02-1.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사업 거버넌스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마을별 현장조사와 포럼을 거쳐 여러 아젠다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릉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강릉시지속가능협의회, 자원순환본부, 강원일보, 문화그룹 스콘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쓸모지원단을 발족하여 '똑 떼기 버려요!'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두운 골목 문제 해결을 위해 밤돌동과 안심골목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일정
2020년 9월 2일(수) ~ 23일(수)
- **1차** - 9. 2(수) 오전 10시 :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 **2차** - 9. 16(수) 오후 4시 : 내곡동(가톨릭 관동대학교 원룸밀집지역)
- **3차** - 9. 23(수) 오후 4시 : 강남동(단독주택가)
- **4차** - 10.7(수) 오후 4시 : 부기촌(밀집주택가)
- **5차** - 10. 14(수) 오후 2시 : 포럼

운영대상
- 쓸모지원단(15명)

운영시간
- 각 회차 2시간 (탐방 후 워크숍 진행)

주요내용
- 도시탐방, 의견교류

주최 및 주관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협력단체
-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

1차)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

워크숍

일시
9월 2일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내용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프로젝트 설명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쓰레기 캠페인 사업 배경 및 취지 설명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쓰레기 캠페인 사업 운영 방향 설명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강원일보사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진행

쓸모 지원단은 강릉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으로 전문가 및 활동가와 함께하며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고민하고 쓰레기의 현황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 - 현장탐사 및
워크숍(내곡동)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쓸모지원단 내곡동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

- **일시** 2020년 9월 16일
- **운영인원**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단, 인문활동가 등

운영내용

1. 대학가 원룸촌 일대 쓰레기 배출 현황 파악
2. 원룸촌일대 분리수거 현황
3.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4. 쓰레기 및 재활용자원 배출 및 수거현황

운영코스

세븐일레븐관동대원룸점 → 해동학사크린하우스 → 강릉내곡아파트 → 강부아파트 → 공원 → 관동대 정문 → 범일로 579번길 원룸촌 → 편의점

워크숍 내용

1. 크린하우스

- 쓰여져 있는대로 분리배출이 안됨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 배출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
- 플라스틱 등 입구가 작아 배출이 어렵고 다른 것들과 섞이거나 쉽게 넘쳐버림

2. 공공용 쓰레기봉투

- 공공용 봉투의 분리수거가 필요함
- 공공용 봉투 배출로 다른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들이 주변에 배출됨
- 공공용 쓰레기 봉투 처리방식에 대한 환경미화원 교육이 필요
-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상 분리수거가 어려움
- 환경미화원 전기차 도입등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공용 봉투의 방치를 줄여야함

3. 인센티브

-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곳은 자꾸 칭찬해줘야 함
- 분리수거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 제공되야 함 (스티커나 현판제공, 쓰레기봉투 제공)
- 지역별 배출상황이 다르므로 지역에 맞는 배출방식을 발굴 보급해야 함

4. 분리수거

-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함(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 분리배출 요일제의 부활도 고민할 만 함
- 2023년부터 소각로가 들어오면 소각용, 비소각용까지 분리해야 해 현재 분리수거의 개념 정착이 절실히 필요
- 플라스틱병 라벨을 떼거나, 뚜껑을 분리하는 등 교육이 필요
- 압축기등의 보급으로 배출방식을 바꿔야 함

5. 홍보방법

- 관동대 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홍보가 필요
- LINC사업단과 연계한 사회혁신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분리배출방식 홍보를 품목별로 진행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함
- (구)터미널 주변 외국인노동자들이 쓰레기 배출방법을 모름
- 외국인 대학생들도 쓰레기 배출방식을 몰라 불법투기 되고 있음
- 다국어 홍보물 제작과 배포가 필요
- 역, 터미널, 관광지에 쓰레기 배출 안내 책자 제작 배포가 필요

6. 기타의견

- 생각보다 덜 심각한 상황
- 덜 심각한 것은 얼마전 지나간 태풍 영향일 가능성
- 주인이 관리하는 곳과 주인이 없는 곳과의 차이가 많이 남
- 주민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함(주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
- 아파트와 일반주택, 원룸과의 배출 방식이나 형태의 차이가 남
-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힘이나 법제도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함
-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함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답사

일시
9월 16일(수)

장소
내곡동 일대(가톨릭 관동대학교 원룸밀집지역)

코스
세븐일레븐관동대원룸점-해동학사크린하우스-강릉내곡아파트-강부아파트-공원-관동대 정문-범일로 579번길 원룸촌-편의점

참여자
총 15명(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단, 인문활동가 등)

주요내용
- 대학가 원룸촌 일대 쓰레기 배출 현황 파악
- 원룸촌 일대 분리수거 현황,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 쓰레기 및 재활용 자원 배출 및 수거현황 파악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쓸모지원단 내곡동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

운영사진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워크숍

-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나눔
- 쓰레기 배출 홍보방안 논의
- 문전 수거 홍보 및 배출 방식의 대안제시
- 관동대학교 학생 연계 홍보 방안 모색
-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배출방식 홍보방안 논의

3차)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 - 현장탐사 및
워크숍(강남동)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쓸모지원단 강남동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

- **일시** 2020년 9월 23일
- **운영인원**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단, 인문활동가 등

운영내용

1. 단독주택 일대 쓰레기 배출 현황 파악
2.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분리수거 현황
3. 쓰레기 집하장 현황
4. 쓰레기 및 재활용자원 배출 및 수거현황

운영코스

강릉교육지원청 → 노암길 → 쉬뢰딩거앞 집하장 → 노가니길 → 노암한라1차아파트 → 노가니남길 32번길 → 연화봉길 → 시영주택 → 연화봉길10번길

워크숍 내용

1. 분리배출

- 서울 성수동은 그물망을 집집마다 입구에 걸어 놓고 분리수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강릉에도 접목해 볼만 함
- 그물망 사용시 수거시 어려움이 있어 대안모색이 필요함
- 캐나다의 경우 집앞에 본인의 쓰레기통이 있어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수거안하고 있어 그런 방식이 분리수거에 더 효율적일 것임
- 냉매 공동수거해 신선식품 업체 등에 재사용하게 보내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추석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는 모아서 업체에 재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캠페인처럼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2. 집하장에 대한 제안

-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점이 있어 분리수거함이 필요하리라 생각됨(분리수거함 세분화 필요)
- 집하장에 막대를 꼽아 박스등은 접어서 배출하게끔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해 보임
- 집하장이 없이 집하되는 곳에는 바닥에 접혀진 박스 그림을 그려 박스를 버리는 곳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분리수거함의 기능성 강화가 필요(깡통이나 스티로폼 압축 시설 등)

3. 음식물쓰레기(RFID)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
(음식물쓰레기 비용 상승시 저소득계층의 불법투기 가능성이 있어 대안필요)

4. 홍보방안

- 주택가는 통반장을 활용한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요령 홍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임
- 통반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임
- 통반장은 마을사람과 이미 소통되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계도 홍보방안으로 보임
- 옵면동 이통반장회의에 5분 교육을 실시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짐. 별도의 이통반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아파트의 경우 경비업법이 개정되는 시점이라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하기 좋은 시점임
- 아파트 경비원분들 교육을 진행했으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할때도 싸우자는 이미지보다는 교육의 이미지가 필요(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누군가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영상제작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이 좋을 듯
- 법보다는 시민인식개선에 주력해야 함(홍보현수막 활용)

5. 배출방식

- 문전수거와 집하장 수거 등 배출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
(문전수거가 깨끗함)
- 상가지역은 판매물품의 잔해물(포장 등)이 많아 쓰레기량이 상승함
- 일수 등 명함식 쓰레기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 수거해 오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강릉시 정책이 있음
- 명함식 쓰레기는 투기자들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필요함

6. 기타의견

- 동별로 다름을 느낌
- 주택밀집지역과 차량통행여부에 따라 쓰레기현황이 다른 것 같음
- 노암동 일반주택지역은 생각보다 깨끗했음
- 단독주택가가 아파트에 비해 지저분한 지역이 많은데 비해 상가지역을 제외하고는 깨끗한 편임
- 내곡동에 비해서는 깨끗하게 느껴짐
- 관동대 인근에 비해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고 있고 임의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거의 없음
- 예전에 비해 살기좋은 동네로 느껴짐
- 주택가의 특징이 분명함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답사

일시
9월 23일(수)

장소
강남동 일대

코스
강릉교육지원청- 노암길- 쉬뢰딩거앞 집하장- 노가니길- 노암한라 1차 아파트- 노가니남길 32번길- 연화봉길- 시영주택- 연화봉길 10번길정문- 범일로 579번길 원룸촌-편의점

참여자
총 13명(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단, 인문활동가 등)

주요내용
- 아파트와 단독주택 일대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 현황 파악
- 쓰레기 및 재활용자원 배출 및 수거 현황
-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통반장을 활용한 쓰레기 배출 홍보방안 논의

다 같이 돌자 동네열바퀴

쓸모지원단 강남동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

운영사진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워크숍

-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나눔
- 통반장을 활용한 쓰레기 배출 홍보 방안 논의
- 문전수거의 홍보 및 배출 방식의 대안 제시
-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방안
- 냉매 등 일시적 쓰레기 재사용 방안 모색

4차) 쓸모지원단
다돌동 프로젝트 - 현장탐사 및
워크숍(부기촌)

다 같이 놀자 동네열바퀴

쓸모지원단 성덕동 부기촌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

- **일시** 2020년 10월 7일
- **운영인원**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단, 인문활동가 등

운영내용

1. 밀집다세대주택 일대 쓰레기 배출 현황 파악
2. 밀집다세대주택의 분리수거 현황
3. 쓰레기집하장 현황
4. 쓰레기 및 재활용자원 배출 및 수거현황

운영코스

광순경로당 → 성덕유아원 → 율곡로 2738번길 → 크린하우스 → 강중길 20번길 → 강중이용소 앞 집하장 → 부기길 16번길 → 부기길

워크숍 내용

1. 쓰레기와 삶의 질

- 지대가 높을수록 사가지고 오고 버리는 것이 힘들어 쓰레기 량이 적음
- 쓰레기가 적다는 것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보임
-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하는 사람과 도로연결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로 구분됨
- 소방도로가 연결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
-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활용한 식생활로 쓰레기 배출량이 없어 보임
- 노인분들은 시장을 잘 다니지 않으니 비닐봉투도 씻어서 재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부기촌은 쓰레기가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이 문제임
- 집을 고치고 길을 내는 것은 세금낭비 가능성이 있어 차라리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이 더 절실해 보임
- 경제활동이 쓰레기 배출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임. 소비자체가 적다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걷는 길 조성

- 시멘트벽돌조차 정감을 주는 옛길 느낌이 있어 추억의 길을 조성이 필요
- 오래된 집들이 포토존이 될 수는 있으나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우려됨
- 동네를 잘 손질하면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사람보기 어려워 사람만나는 것을 반가워할 것 같음
- 비어버려 담쟁이가 뒤덮은 빈집이나 비좁은 골목이 사진 찍는 젊은 사람들 눈에는 감성적으로 배경으로 비춰지고 있음
- 외지 관광객이 유치하는 것 보다는 사는 사람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함
- 가난을 소비하고 감상하는 것을 빈곤포르노라고 부르고 있는데 골목이 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는 사람들이 내려다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시선의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생각해야됨

3. 빈집관련

- 빈집의 노후화로 무너지고 있어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나 좁은 골목으로 인해 처리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음
- 정상부분에 빈집들은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이사 가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임

4. 쓰레기 처리

- 손이 닿지 않는 곳이나 숨어있는 장소에 쓰레기가 투기 되고 있음
- 고령자들이 많고 언덕이 높아 쓰레기 처리에 힘듦이 보임. 바퀴 달린 쓰레기통 보급 등을 고민해 볼 필요
- 쓰레기가 눈에 안보이는 반면 구석진 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곳곳에 있어 안타까움
-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으로 보여 쓰레기 배출이 환경문제가 아닌 복지문제로 보여짐

5. 기타의견

- 높은 곳에 위치한 집들도 쓰레기가 없고 깨끗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잘살아온 느낌
- 생각과 달리 쓰레기가 적었음
- 집집마다 벽과 강아지가 있어 본인의 영역을 두껍게 치는 느낌이 듬
- 최근 들어 간간히 방문해본 결과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활기가 있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음
- 고령자들이 부지런한 편이라 구조적으로 깨끗할 수 밖에 없어 보임
- 작은 공간들마다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잡초가 없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다 같이 놀자 동네열바퀴

쓸모지원단 성덕동 부기촌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

운영사진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탐방

일시
10월 7일(수)

장소
성덕동 부기촌 일대

코스
광순경로당- 성덕유아원- 율곡로 2738번길- 크린하우스- 강중길20번길- 부기길 16번길- 부기길

참여자
총 16명(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단, 인문활동가 등)

주요내용
- 밀집다세대주책의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 현황 파악
- 쓰레기 배출과 경제적 여건에 대한 상관관계 논의
- 고령자를 위한 쓰레기 배출 방식 논의

워크숍

-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공유
- 쓰레기 배출과 경제적 여건에 대한 상관관계 논의
- 쓰레기 배출문제와 삶의 질 문제 논의
- 고령자를 위한 쓰레기 배출 방식 논의
- 관광객 유치로 걷는길 조성과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논의

똑떼기버려요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원일보와, 강릉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와 함께 올해 10월~11월 6주간 '똑떼기 버려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똑떼기 버려요'는 일회용 마스크를 시작으로 페트병, 스티로폼 박스, 유리병 등 쓰레기도 버리는 요령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자원 캠페인 광고를 강원일보에 10회 게재하였습니다.

12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강릉 양양 제21880호 강원일보

/ 코로나 재확산 /

강릉의료원 음압병상 추가 확보에 총력

지난달 24개 추가 이어 29개 재추가 총 77병상 계획
현재 27명 입원– 의료원 "10여명 조기 퇴원 유도"

지난 열흘 새 강릉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명 늘어나는 등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치료 병상 여유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릉시와 보건 당국에 따르면 11월29일 현재 강릉 29번 확진 환자 이후 30, 32, 33번 확진 환자가 강릉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타 지역 확진자의 경우 춘천 2명, 속초 2명, 철원 18명, 삼척 1명 등 모두 23명이 강릉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릉의료원은 당초 지난달 19일부터 24개의 간이 음압병상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장비 설치 등이 지연되며 추가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A씨의 병상 배정이 늦어지며 자택 격리 중 다음 날 강릉의료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에 강릉의료원은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1일부터 2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총 77개의 음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릉의료원에 따르면 음압병상 17개와 함께 모두 48개의 병상을 운영했지만 지난주 한때 30여명을 넘어서는 환자 수로 여유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강릉의료원 측은 겨울철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여유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릉의료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정형외과 수술환자 10여명의 경과 상태에 따라 조기 퇴원을 유도하며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강릉 33번 확진 환자 이후 사흘간 추가 확진 환자의 발생은 없었다. 특히 11월28일 총 6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며 한숨 돌린 상태다. 강릉=김천열기자

감염 위험에 지역 문화예술행사 무관중 전환

강릉예술축전·강릉예술인상 시상식 등 온라인 중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릉지역 문화예술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관중으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릉예총은 1일 오후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예정된 제50회 강릉예술축전 개막식과 제27회 강릉예술인 시상식을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릉예술축전 50주년을 맞아 올해는 박선자 (사)강릉예총 회장과 각 협회의 지부장들이 합심해 '소리와 몸짓 50년'이라는 주제로 개막공연을 펼치기로 예정됐었다. 또 강릉예술축전의 50주년 발자취를 담은 아카이빙 영상을 상영키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무관중 온라인 중계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또 제27회 강릉예술인상 시상식과 예술인의 밤 행사도 이날 예술축전 개막공연에 앞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3~4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릉시립교향악단과 강릉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도 무관중 공연으로 전환, 온라인상에서 관객과 만난다.
강릉문인협회는 3일 마련한 제10회 강릉문학상 시상식을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김동명문학관에서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른다.
관동문학회도 9일 세인트컨벤션홀에서 개최하려던 제30회 관동문학상 시상식의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릉=조상원기자

강릉 성탄트리 점등식 '2020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달 29일 강릉역 회전교차로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김한근 강릉시장, 강희문 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수묵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협의회 이사 중앙회장 금장 수상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협의회 정수묵 이사는 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30일 양양군복지회관에서 중앙회장 금장을 수상했다.

수정란이식 한우 1등급 출현율 100% 달성

【양양】양양군이 수정란생산이식(공동연구) 한우 1등급 출현율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10월까지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조사에서 전국 평균 73.8%를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도 평균은 79.9%다.
이에 군은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와 2015년도부터 진행한 공동연구 개체들의 후대축 출하를 시작으로 5년간 진행한 한우 개량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와 추진하는 공동연구는 관내의 우수한 암소(엘리트카우 및 후대축 도체성적 1++등급 이상 등)를 개체에 맞는 맞춤정액을 사용해 체내 우수한 수정란을 생산, 공란우 제공 농가 및 공동연구 참여 농가에 이식해 개량기간을 단축시키고 한우 개량에 앞서 가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암소를 공란우로 선정, 양양군 자체적 한우 개량에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양양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금 지원

【양양】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올 들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지역 내 169개 농가 14만7,311㎡의 농지에서 옥수수, 벼, 콩, 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1억1,148만원이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8,705만여원의 피해보상금을 책정,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작목별로는 옥수수가 100건, 7만6,62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김천열기자

생활게시판

◆미담◆
◇참빛영동도시가스(회장:이대병)는 최근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에 거주 모범 대학생 5명을 선발해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릉】

◆토막소식◆
◇강릉시와 (사)남북물류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북방협력과 물류종합시설의 전개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씨마크호텔 바다홀에서 열린다. 【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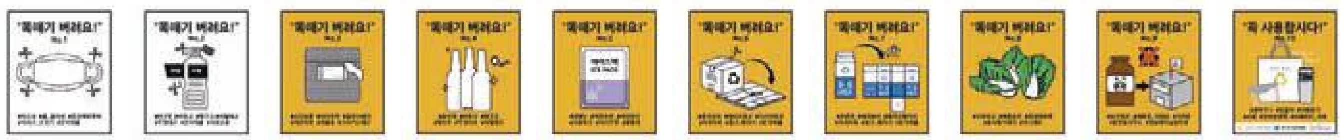
"쓰레기 속 보물찾기 운동 분리수거 큰 기여"

본보 등 주최 '똑떼기 버려요' 캠페인 강릉시민 호평
바둑광고 10회 등 노력 재활용 자원 인식 전환 도움

【강릉】"요건 쓰레기, 요건 재활용품 똑떼기 버려요!"
강원일보와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 등은 올 10~11월 6주간 '똑떼기 버려요'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들은 이번 캠페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 8월부터 쓰레기 속 보물을 찾기 위한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마을별 현장조사와 포럼을 거쳐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쓸모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자원 캠페인 광고를 강원일보에 게재, 10회를 이어 왔다. 일회용 마스크를 시작으로 페트병, 스티로폼박스, 종이박스, 유리병, 아이스팩, 우유팩, 배추, 농약병, 장바구니까지 쓰레기도 버리는 요령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장철현 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일회용 마스크를 그냥 버리는데 야생동물에게는 마스크 끈이 올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끈을 잘라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알고 버리고 습관이 돼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옥 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강릉시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재활용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똑떼기 버려요 캠페인'이 주민 인식전환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상원기자

"똑떼기 버려요!" No.8
"똑떼기 버려요!" No.9
◇'똑떼기 버려요' 바둑광고.

똑떼기 버려요 아이콘



플로킹을 접목한 쓰돌동 운영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활동명 플로킹(flocking)을 접목한 불당골 새뜰마을 조성 사업지 현장답사

* 플로킹 : 스웨덴어로 '줍다'는 뜻의 플로크업(plock-upp) 이라는 단어와 영어로 '걷다' 뜻의 워킹(walking)을 합친 신조어로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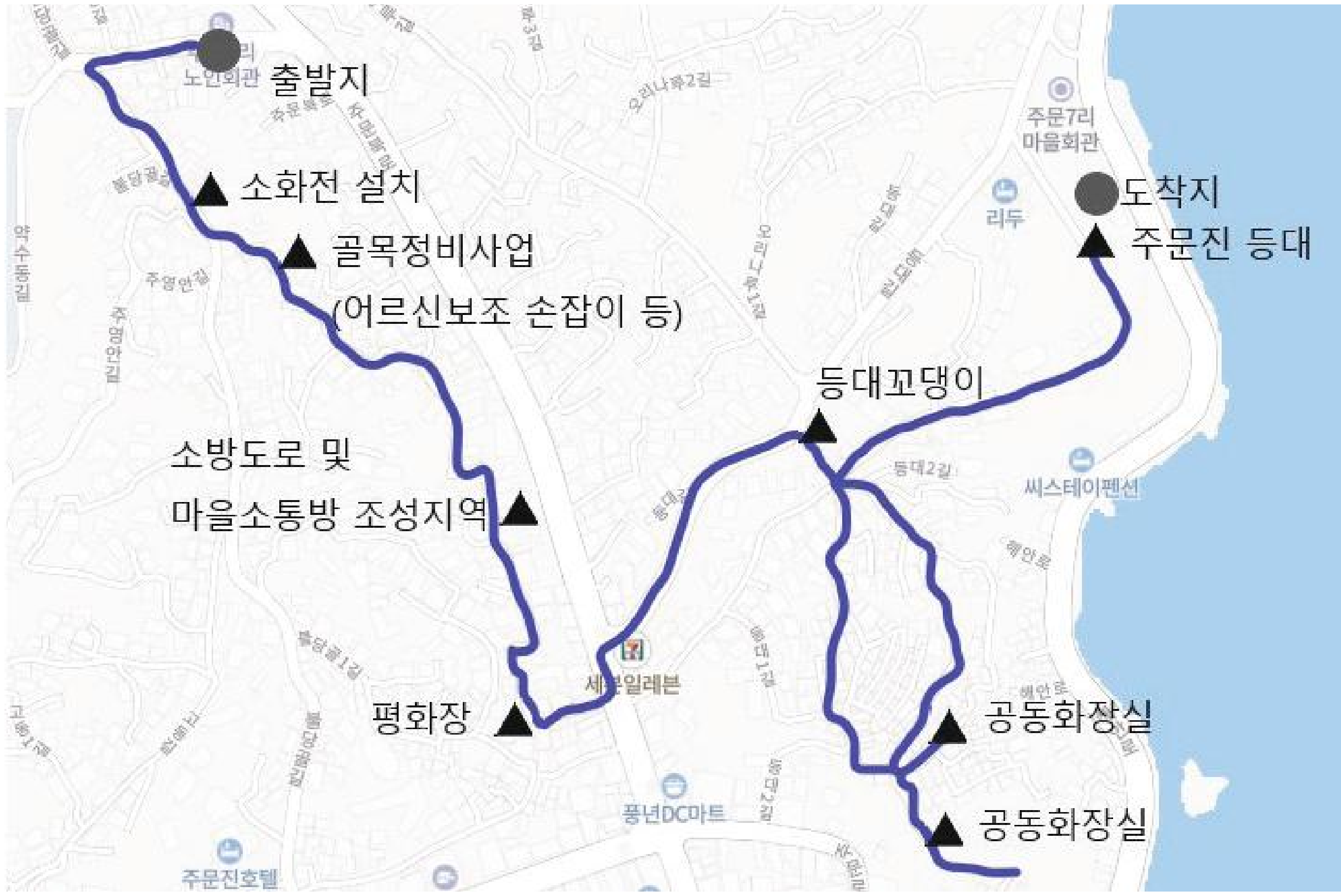
참여단체 UN해비타트-SH어반스쿨 1기

운영일정

시간	세부일정	비고
12:30-14:40	불당골→등대마을 코스 답사+플로킹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남옥 강릉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철현 문화그룹 스콘 송성진

답사인원 32명

운영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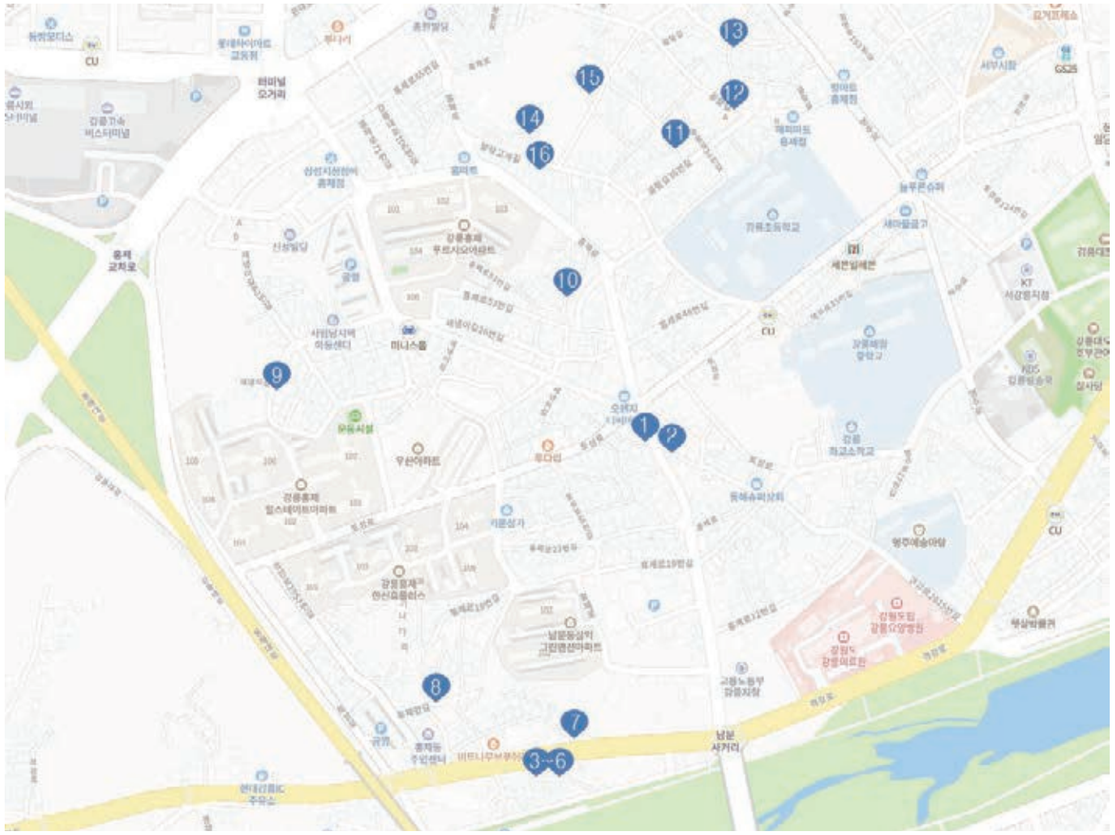


밤돌동/안심골목사업

어둡고 좁은 골목문제 해결을 위해 밤돌동을 실시하여 골목현황을 파악한 후
강릉시 강남동 및 홍제동 일원에서 안심골목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영방안
- 대상지 선정 후 골목 벽 조명 설치
- 밤돌동 후 위치선정
- 해당 위치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
- 디자인 전문가 참여 및 자문

설치장소
-골목 벽 조명설치 위치



02-2. 도시재생 관련기관 거버넌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 도시재생 사업지 센터와의 정보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타 시·군 센터 방문 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타 시·군 센터와의 정보공유

연번	일시	협력기관	장소	주요내용
1	5.15.(금)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지원센터	신산머루 도시재생 지원센터	- '우리동네 살리기'유형에 관한 정보교류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교류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성에 관한 논의
2	6.1.(월)	의왕시 도시재생과	강릉시도시재생 지원센터	- 각 센터별 사업설명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운영관련 정보공유
3	6.12.(금)	단양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강릉시도시재생 지원센터	- 각 센터별 사업설명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운영관련 정보공유
4	6.29.(월)	제주시 건립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제주시 건립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건립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 현황 정보교류 - '일반근린형'유형에 관한 정보교류 -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교류
5	6.30.(화)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지원센터	-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 현황 정보교류 - '일반근린형'유형에 관한 정보교류 -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교류

강원도 도시재생 사업지 센터와의 정보 및 아이디어 교류

연번	일시	협력기관	장소	주요내용
1	4.2.(목)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도시재생 지원센터	- 소규모재생사업 관련 정보교류 - 센터 간 상호협력방안 논의
2	6.11.(목)	동해시 동호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동호지구도시재생 현장지원	- 동호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현황 정보교류 -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에 관한 정보교류 -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정보교류
3	6.11.(목)	삼척시도시재생 지원센터	삼척시도시재생 지원센터	- 삼척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정보교류 -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정보교류 - 읍성길 마을해설사 양성에 관한 정보교류

강릉시도시재생사업 유관기관과의 정보 및 아이디어 교류

연번	일시	협력기관	장소	주요내용
1	1.20.(월)	강릉문화재단	서부시장 그로티	- 2020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 사업계획 설명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와 강릉문화재단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3.16.(월)	파랑달	파랑달	- 2020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거버넌스
4	3.23.(월)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	- 2020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설명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강릉원주대학교 LINC+ 사업단 사업 연계 및 협력방안 논의
6	5.19.(화)	강원도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대	- 고한8리 마을호텔 18번가 개장식 참여 및 마을호텔 견학 - 강원도 도시재생 추진협의 회의 참석
8	6.2.(화)	강릉원주대학교 LINC+ 사업단	강릉원주대학교 산합협력관	- 강릉원주대학교 링크+사업단-협동조합플랫폼 MOU체결 - 가톨릭관동대학교 링크+ 사업단 사업 및 강릉시도시재생사업관련 정보교류 - 강릉원주대학교 링크+사업단-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 긴 상호협력을 위한 논의
9	7.14.(화)	가톨릭관동대학교 링크+ 사업단	관동대학교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혁신 협의체 유관기관 간담회
10	8.13.(목)	지속가능협의회 자원순환본부 문화그룹 스콘 강원일보	내곡동 일원	- 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설명을 통해 사업관련 정보 공유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운영 현황 설명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 공유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쓰레기편의 운영 방안 협의 - 발대식 및 포럼 장소, 시간 협의 - 자원순환본부의 시민감시단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 탐사 후 소그룹 워크숍을 진행하여 당일 느낀점과 제안점을 공유하기로 함 - 기록화사업 병행(사진 및 인터뷰)
11	8.24.(월)	지속가능협의회 자원순환본부 문화그룹 스콘 강원일보	내곡동 및 노암동 일원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쓰레기편 운영을 위한 사전답사(내곡동 및 노암동) - 최소한의 인원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및 참여 주체자들 간 오리엔테이션 진행
12	9.16. (수)	가톨릭관동대학교 링크+ 사업단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릉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회의

여는 글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단순히 주민이 숙원사업을 자립으로 추진하는 공동체를 양성하기 위한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민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주민참여의 장입니다. 서로 모여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공모 신청하고 발표하고 선정되는 과정 모두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 사업에서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처음 만드는 사업계획이 일목요연할 수 없고 처음 하는 발표가 매끄러울 수 없고, 처음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처음 써 보는 나랏돈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하는 일이 힘겨워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들 말하는 자발적 주민참여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놀자'로 공모 선정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재미있으면 덜 힘들어 하실까 싶어서.....
다행히 선정된 6팀 모두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했고 따뜻하게(엄청 추우셨죠?) 성과공유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처음이 힘들지 다음 번은 더욱 재미있으실 것을 단언합니다. 전통주연구반의 전통주, 해살이 마실테라의 팥빙수, 공감협동조합의 햇살박물관, 강릉자수알리미의 예쁜 마스크 그리고 반짝반짝 아날로그의 운산 아이들, 사유하는 도시의 감성 깊은 좌표 여행!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사업들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소규모도시재생뉴딜사업은 4개의 사업계획으로 국비공모 신청하였지만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강원도에서는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국토부에서 1개의 사업만이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주문진 도시재생경제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줌[JOOM]'이 선정 된 것은 마실와의 김남희 대표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중 은행나무 아이스크림 아이디어는 그 중 으뜸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줌씨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대학 일반과정과 전문가양성과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인력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위한 이론수업과 현장탐방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추진 교육으로 진행한 도시재생대학의 교육운영은 탈도 많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도 많았지만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템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강생들은 꿋꿋이 헤쳐나갔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히 사업계획을 바꾸고 행정협의까지 솔선수범해서 처리해 나가고 지역의 자원으로 동네를 가꾸는 모습들이 이미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임당동000프로젝트, 홍제쉬어가소, 명주무지개복개길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에 흠뻑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2부

도시재생 활성화 월별 활동.

01월

29일 포남동 현장답사

03월

1일~23일 주민공동체모임 활성화 사업홍보 미팅 4회 진행
18일 강릉시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사 선정 심의 참여
25일 '강릉한달살이' 시범운영

03월

1일~23일 주민공동체모임 활성화 사업홍보 미팅 4회 진행
18일 강릉시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사 선정 심의 참여
25일 '강릉한달살이' 시범운영

04월

2일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3일 강릉시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22일 강릉시 쇠퇴진단 결과 공유 및 현장실사 일정 논의
27일 공동체 조직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 운영계획 수립
29일 영상제작 및 마을소식지 발간 용역 업체 선정 :
아날로그라피스튜디오(문화그룹 스콘)

09월

2일 영상제작 및 마을소식지 2차 완료

07월

14일 주민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17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간담회의 개최
25일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 발표평가회 개최
27일 주민공모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06월

10일 소규모 재생사업 현장점검
25일 영상제작 및 마을소식지 1차 완료(홍제동)
26일 강원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소식지
'강원도, 월간 도시재생' 인터뷰 참여

05월

6일 세부지표 진단 결과 공유 및 추가 데이터 확보 논의
영상제작 및 마을소식지 발간 용역 계약 체결(5.6.~11.5.)
12일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참여
14일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발표(마실와)

2. 뭐하고노나? 재미나게 놀자!

도시재생 활성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강릉지역 이슈 도출 및 해결'등의 주제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소규모재생사업 및 주민공모사업 "뭐하고 노나? 재미나게 놀자!"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주민이 도시재생의 활동가로서 지역 이슈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01. 2020 소규모재생사업

2020 소규모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소규모 단위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수시로 주민공동체와 센터 간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 및 진행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거점장소를 확인하고 사업비 운영 계획 및 뉴딜사업 연계 구체화를 논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4월 10일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서 제출
(3개 공동체)

5월 14일

선정발표 :
3개 팀 중 1개 선정(마실와)

공동체명	주요내용
마실와	- 지역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문화 컨텐츠 발굴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명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줌[JOOM]'(주문진을 들여다 보다)

사업목적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킹 형성과 자원탐색으로 경제조직 활성화를 모색하고, 주문진을 대표하는 도시재생회사를 육성하여 뉴딜사업으로 발전시켜 협업중심의 시민사회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개요
1. 줌씨네[JOOM's FAMILY] : 지역 내 인적자원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2. 줌토리[JOOM TORY] :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및 홍보
3. 줌스쿨[JOOM SCHOOL] : 주문진만의 도시재생기업 육성 및 인큐베이팅

사업명 |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제목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줌(JOOM)

주민조직명 : 주문진문화기술관광협의회 마실와

사업목적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킹 형성과 자원탐색으로 경제조직 활성화를 모색하고, 주문진을 대표하는 도시재생회사를 육성하여 뉴딜사업으로 발전시켜 협업중심의 시민사회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대상지역

주문진읍 주문리, 교항리, 장덕리, 향호리, 삼교리 일대(60.56㎢)
HW위치 : 주문리 74(오리나루2길 27), 웃음바다펜션

사업개요

사업내용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통합 플랫폼 **줌씨네(JOOM's FAMILY)** 01	지역자원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탐사대 **줌토리(JOOM TORY)** 02	도시재생기업 육성을 위한 **줌스쿨(JOOM SCHOOL)** 03
문제제기	주문진은 지역 내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서로 간 소통 부재	주문진은 시장중심 관광콘텐츠가 대부분으로 지역 스토리텔링 부재	주문진 기술기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장 부재
필요성	○통합브랜드 구축 ○커뮤니티 조성 ○지역소통 활성화	○콘텐츠 기반 구축 ○지역 테마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이미지 구축 ○지역상품·서비스 개발 ○도시재생기업 활성화
뉴딜관련성	지역공유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 탐구 문화를 만들어 도시경쟁력 회복 기여	도시재생기업 창업과 유휴공간 재생으로 주거복지 실현 기여
해결방안	**지역주민, 단체, 소상공인을 대상** - 지역 일반현황, 인적자원, 지역경제·공동체 조사 - 운영 플랫폼 개발 및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67.10백만원** · 주민조직 참여인력 총 4명 · 기관 참여인력 3명 · 사후관리 인력 1명	**지역주민, 국내·외관광객 대상** - 지역 유무형자원, 유휴공간 조사 - 지역자원 데이터화, 스토리텔링 기반 테마지도 제작·배포 및 지역홍보 콘텐츠 제작 **44.10백만원** · 주민조직 참여인력 총 4명 · 기관 참여인력 3명 · 사후관리 인력 1명	**지역주민과 이주희망자들 대상** - 지역 경제조직, 농어촌 관광 인지도, 청년일자리 수요조사 - 지역 맞춤 교육 개발 및 공유공간 조성 기반 도시재생기업 육성 **88.08백만원** · 주민조직 참여인력 총 5명 · 기관 참여인력 3명 · 사후관리 인력 1명
적절성	주문진 내 다양한 동호회 및 공동체의 활발한 활동	주문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분위기	항구와 해안가 위주의 지역개발 본격화
기대효과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기여와 사회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및 홍보 활성화로 정보제공의 중심과 재생이익 분배를 통해 도시경쟁력 회복	지역정착 및 창업 활성화로 정체성 확립과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기업육성과 주거복지 실현

지속가능성

도시재생회사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소외받지 않고 지역 내에서 누구나 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구심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을 관찰하고 관광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소식지를 제공하며, 교통과 보행환경, 자전거 도로와 같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관광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문화로 정착시키며, 협업 매칭,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고자 함

1. 도시전략계획의 목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기능을 부여하고, 지역성장 중심지로 육성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
2. 주문진시장 및 해안 중심으로 편중되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역자원 데이터화
3. 지역 자원과 연계한 수산가공, 유통기능강화, 관광휴양 신시가지 조성 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 마련
4. 외연 확장된 관점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개발, 테마지도 제작 등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5. 기존 주민조직, 단체,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워크숍등을 제공하여 공동체 연계기반 마련

줌(JOOM)은 주문진을 들여다 보다의 의미

마실와는 4차산업기술을 활용하여 환경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문화로 이야기하는 주문진의 문화기술관광협의회로써 지역문화활동가, 주민, 관광객과 함께 다양한 참여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에 기여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연혁
- 마실와 협의체 구성(2019년01월)
-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2019년4월10일)
- 주문진문화기술관광협의회 마실와 설립(2019년4월22일, 비영리민간단체)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2020년3월23일)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줌(JOOM)

사업추진

최종목표

1. **'줌씨네(JOOM's FAMILY)'** : 지역 내 인적자원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2. **'줌토리(JOOM TORY)'** :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및 홍보
3. **'줌스쿨(JOOM SCHOOL)'** : 주문진만의 도시재생기업 육성 및 인큐베이팅

세부목표

	항목	줌씨네	줌토리	줌스쿨
성과 지표	정량적	수요자 만족도	콘텐츠 만족도	참여자 만족도
	일반산출물	주민협약	재생계획 수립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HW산출물 36,380천원 (18.20%)	-	-	이동식 교육장 디지털 복합기

* 현 주문진의 유휴공간조사결과 강릉시 소유 유휴공간(건물)이 없고, 모두 개인 혹은 단체의 사유지로 되어있으며,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아 리모델링을 통해서만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본 사업에서는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이전이 편하도록 이동식 교육장(컨테이너)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였음

목표 달성방안

세부사업명 | **01.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통합 플랫폼 '줌씨네(JOOM's FAMILY)'**

내역사업명 |

		과정	방법	내역
기초조사 연구	지역의 일반현황, 인적자원, 지역경제공동체 조사를 실시하여 인적자원 아카이빙 섭외 리스트 구축	준비	조사	○섭외 리스트 구축 ○브랜드 컨셉
플랫폼 구축	소비자/사용자/관리자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계획	컨설팅	○홍보 전략 ○플랫폼 기획 ○로드맵 작성
인적자원 아카이빙	지역에 숨은 인적자원에 대한 아카이빙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형성	수행	현장	○설명회 개최 ○인터뷰 실시 ○아카이브 제작 ○이벤트 진행
		평가	조사	○참여효과 만족도

세부사업명 | **02. 지역자원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탐사대 '줌토리(JOOM TORY)'**

내역사업명 |

		과정	방법	내역
자원조사 연구	지역의 유무형자원, 유휴공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지역 콘텐츠 컨셉을 도출	준비	조사	○자원 데이터 구축 ○콘텐츠 컨셉
탐사대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스토리텔링 전문가와 함께 탐사대 운영하여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도출하고, 지역의 이야기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국내외관광객들에게 지역을 홍보하고자 함	계획	컨설팅	○마케팅 전략 ○스토리텔링 기획 ○탐사가이드 작성
		수행	현장	○탐사대 운영 ○데이터 관리 ○지도 제작·배포 ○콘텐츠 제작
		평가	조사	○탐사활동 만족도

세부사업명 | **03. 도시재생기업 육성을 위한 '줌스쿨(JOOM SCHOOL)'**

내역사업명 |

		과정	방법	내역
수요조사 연구	지역의 경제조직, 농어촌 관광 인지도, 청년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셉 도출	준비	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이미지 컨셉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역 춤 교육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직접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미니 프로젝트를 지원함	계획	컨설팅	○운영 전략 ○공간조성 기획 ○교육 매뉴얼 작성
공유공간 조성	컴퓨터 시설이 갖춰진 교육장과 생활공간이 포함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 구축	수행	현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유공간 운영관리 ○예비도시재생기업 인큐베이팅
		평가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02. 주민공모사업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살맛나는 강릉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와 강릉지역 이슈 도출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경험 제공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팀명	사업명
해살이마실테라	- 지역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문화 컨텐츠 발굴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전통주연구반	강릉 전통주 체험교실
공감협동조합	햇살 박물관, 이야기를 더하다
강릉자수알리미	'니랑내랑 강릉자수 놀터' 교육 프로젝트
사유하는 도시	내가 공유하는 풍경-좌표여행
반짝반짝아날로그	운산, 우리가 담은 세상

7월 14일
주민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7월 23일
주민공모사업 접수 마감
(11개팀 접수)

7월 25일
주민공모사업계획
발표평가회 개최(6개팀)

7월 27일
주민공모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1) 해살이 마실테라

제안 사업명 농산촌 빈집을 활용한 '해살이 마을' 플리마켓

사업기간 2020.08.~2020.09

사업목적 농산촌의 '빈집'들이 폐가로 방치되어, 마을경관을 손상시키는 원인 등을 제공하는 것에 주목하여, '빈집' 활용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농산촌의 마을 재생'에 일조함.

사업내용
-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구연동화 읽기 프로그램 운영 : 월 2회
- 계절별 마을 특산품 전시운영: 감자, 개드룹, 고추, 옥수수, 사천한과, 기정떡 등
- 해살이 헌책방 운영:해살이 마을 각 가정에서 기증한 책을 중심으로 1만 여권 확보 등
- 해살이 마을 내 공방에서 생산된 제품 전시 운영:도마 등 나무 주방용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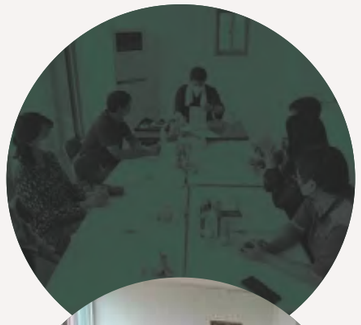
2)전통주 연구반

제안 사업명 강릉 전통주 체험교실

사업기간 2020.08.~2020.09

사업목적 전통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알리고 향후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특색있는 양조장이란 공동체 사업으로 확장 모색

사업내용
- 구성원 모두가 같이 레시피 개발 / 쌀 세척, 밑술, 부의주(동동주), 단호박주, 연잎주 등 만들고 숙성 후 시음 / 고두밥, 백설기, 범벅 등 다양한 방법으로 30~60일 숙성한 고품질의 전통주 만들기 / 막걸리를 응용한 제품 만들기: 찐빵, 술빵, 막걸리과자
-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의 발전 모색 : 전통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알리고 향후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특색있는 양조장이란 공동체 사업으로 확장 모색



3)공감협동조합

제안 사업명 햇살박물관, 이야기를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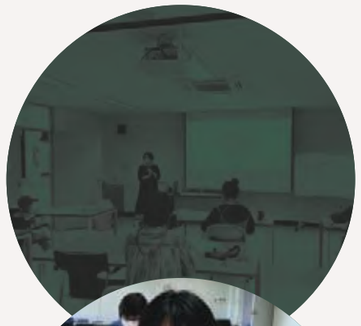
사업기간 2020.08.~2020.09

사업목적 관광객 홍보 및 지역주민들이 햇살 박물관에 관하여 좀 더 알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함

- 박물관 전시품목 스토리 제작_지역주민, 박물관 관장을 통한 전수조사

사업내용

- 제작된 물건의 스토리를 관광객에게 좀 더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안내판, 스토리보드 판넬제작 스토리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 마을주민 네트워크 및 소통의 시간
- 햇살박물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안내 홍보 리플렛 제작



4)강릉자수알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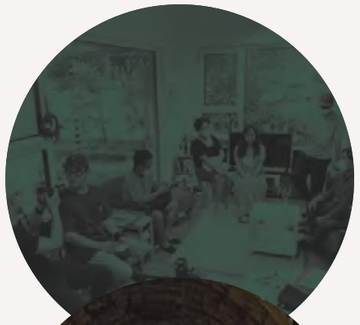
제안 사업명 ‘니랑내랑 강릉자수 놀터’ 교육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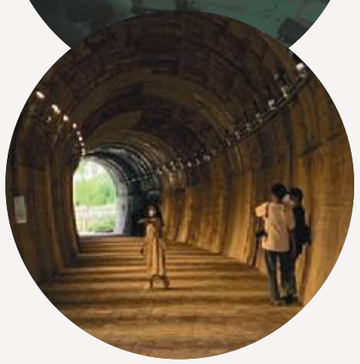
사업기간 2020.08.~2020.09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활동으로 이동이 어려운 시기에 강릉주민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통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강릉자수 놀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사업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내용

- 강릉자수에 대한 전문교육과 관련 수업 및 아이디어 논의를 통해 강릉자수를 모티브로 하는 굿즈를 여러 가지고 제작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종 굿즈를 선정하여 시판물을 제작
- 강릉시민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릉자수에 대한 인지도 및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5)사유하는 도시

제안 사업명 내가 공유하는 풍경-좌표여행

사업기간 2020.08.~2020.09

사업목적 한 개인이 간직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의 장면을 도시 여행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위해 강남동을 시작으로 주민이 품은 장소와 이야기를 발굴하여 좌표와 시간을 정리, 유명지에서 도심으로 사람을 이끌어 강릉시 관광패턴의 다양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1. 구성원 각자의 개인경험 수집 및 시험 수행
2. 지역 이야기 수집
3. 지역주민과의 소통 시도
4. 지역 작가들과 협업
5. 발굴한 좌표로 결과물 제작

6)반짝반짝 아날로그

제안 사업명 ‘운산, 우리가 담은 세상’

사업기간 2020.09

사업목적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일회용 필름카메라에 시선을 사진으로 담아내며 동네에 대한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아이들이 운산동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사업내용

-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0명의 학생들로 구성
- 아이들이 필름카메라를 통해 마을을 담고 리소그라피 인쇄기술을 사용하여 운산동을 소개
- 릴레이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서로를 필름사진에 기록
- 아이들의 다른 시선으로 운산을 기록하고 멘토링을 통해 기록하는 작업이 학습만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도시재생 교육 월별 활동.

02월

26일 새뜰사업 관련 자체역량강화 교육 개최

03월

20일 자체역량강화 현장견학 개최
(명주동 일원 및 햇살박물관)

05월

14일~30일 강릉시 도시재생대학 1강~4강 운영
18일 자체역량강화 개최
(강연자 : 강릉민속문화연구소 소장 김기설)

06월

11일~18일 강릉시 도시재생대학 5강~6강 운영
29일~30일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선진지 견학
(제주도 뉴딜사업지 일원)

07월

28일 강릉시 도시재생대학(기본·심화과정) 1강 운영

08월

4일~18일 강릉시 도시재생대학
(기본·심화과정) 2강~4강 운영

09월

25일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홍제동 개최
28일 자체역량강화 개최
(강연자 : ㈜쿠 퍼실리테이션 그룹 책임컨설턴트 기은경

3. 주민에서 도시재생전문가로

도시재생 교육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강릉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0 강릉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다. 또한 활성화 지역 대상자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가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센터 내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01. 도시재생 대학 -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홍제동 개최

일시 2020.9.25.
장소 홍제동 주민자치센터
참여자수 29명
주요내용 - 도시재생의 이해(김남옥 센터장)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홍제동 이야기 발표(박준상 활동가)
- '홍제동 사람들과 풍경이야기' 발표(송성진 활동가)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강남동개최

일시 2020.11.27.
장소 강남동 주민자치센터
참여인원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강남동 관계자(총 44명)
주요내용 - 도시재생의 이해(김남옥 센터장)
- 강남동 동영상 재생 및 설명(김남옥 센터장)
- 질의응답(김남옥 센터장)

01. 도시재생 대학 - 기초과정

1강 'OT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일시 2020.5.14.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14명
강연자 김남옥(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주요내용 OT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

2강 '우리마을알기 현장탐사(홍제동)'

일시 2020.5.23.
장소 홍제동 일대, 오방
참여자수 13명
강연자 박준상 작가, 김남옥(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주요내용 - 홍제동 일원 현장탐방
- 워크숍

3강 '공동체의 이해 및 주민의 역할'

일시 2020.5.28.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11명
강연자 권순택(지역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주요내용 - 공동체의 이해 및 주민의 역할
- 청주시 중앙동의 과거와 현재(사례)

4강 '홍제동 포럼'

일시 2020.5.30.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12명
주요내용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프로젝트 '홍제동' 활동 총정리 (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 문화기획가가 만난 홍제동의 사람과 풍경(문화그룹 스콘 송성진) / 홍제동을 고하다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추진위원회 고기은)

5강 '선진지 견학'

일시 2020.6.11.
장소 동해시 및 삼척시 일원
참여자수 19명
강연자 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심윤보(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주요내용 - 동해시 동호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방문 및 견학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및 견학

6강 '사회적 경제의 이해'

일시 2020.6.18.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13명
강연자 강연자: 배재국(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주요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사회적 경제의 이해
- 사회적 경제의 사례

1강 '언어의 힘'

일시 2020.7.28.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13명
강연자 김남미(홍익대학교)
주요내용 공동체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어휘의 사용 /
나를 열어가는 글쓰기

2강 '언어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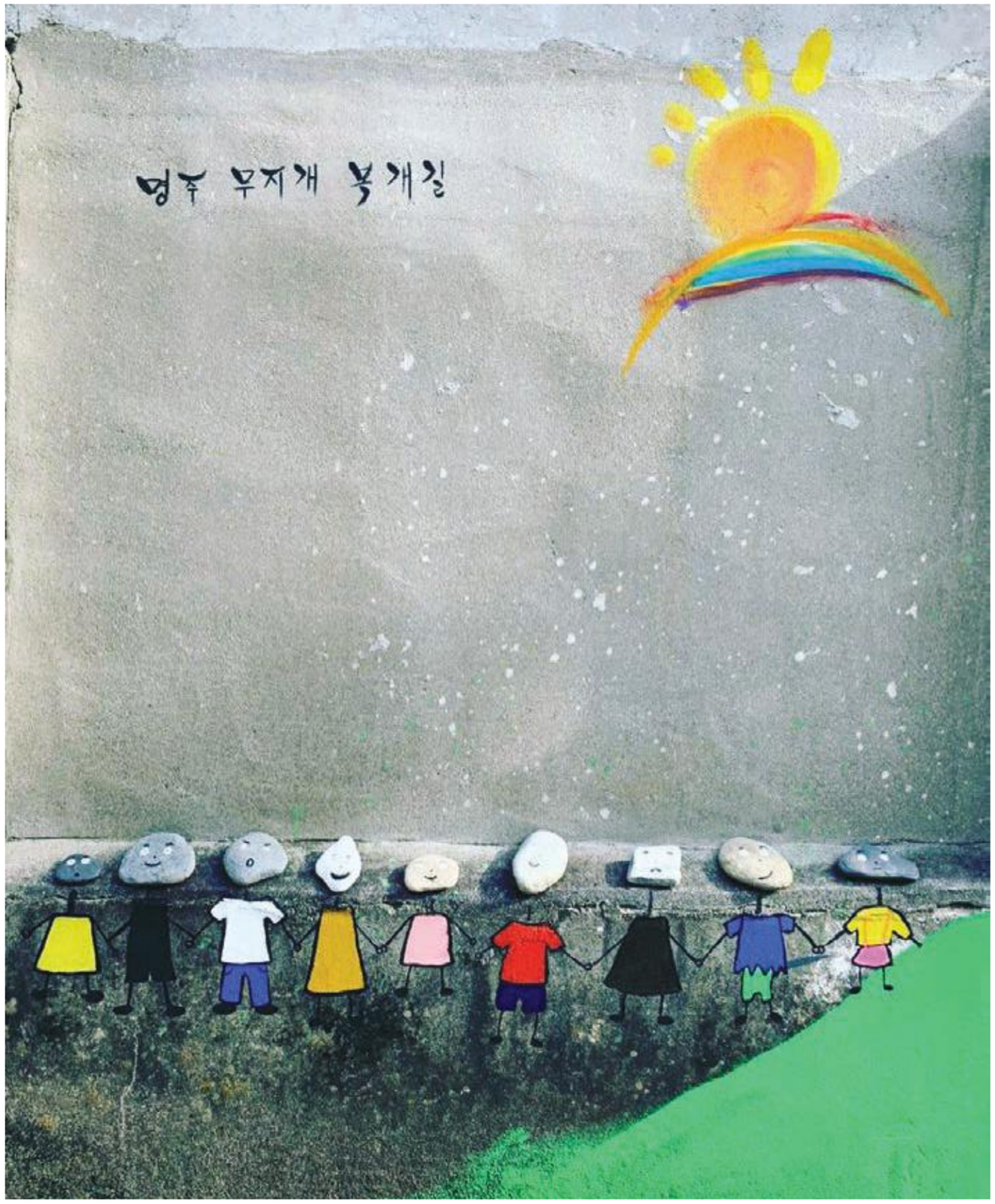
일시 2020.8.4.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7명
강연자 김남미(홍익대학교)
주요내용 화술의 기본/ 나를 열어가는 말하기

3강 '공동체 이해'

일시 2020.8.11.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8명
주요내용 - 공동체 이해: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 거버넌스 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주민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 수강생 자기 소개 및 팀 구성

4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이론/실무'

일시 2020.8.18.
장소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수 7명
강연자 강연자: 이상열(비지소프트)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이론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실무



1조) 임당동000프로젝트

사업대상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

사업지역 임당동 일대

사업내용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이 찾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으나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함

2조) 홍제쉬어가소

사업대상 홍제동 일원(자투리땅을 활용한 환경개선)

사업지역 강릉시 홍제동 해람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사업내용 - 이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공간 운동 시설을 활성화 하고 주민공간으로 재생적 환경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밝은 동네를 만들고자 함

3조) 명주 무지개 복개길

사업지역 명주동(계근치과에서 삼거리까지 복개천길)

사업내용 - 주변 상권에 비해 낙후되어 흉물로 변해가는 골목을 일곱색깔 무지개를 형상화한 벽화 페인팅을 통해 찾고 싶은 골목을 만들고자 함

함께한 사람들

사업추진위원단(조태동 교수)
사업추진위원단(김남대 국장)
주민공모사업(마실테라 최은정 대표)
주민제안사업(고동환 대표)
소규모재생사업(마실와 김남희 대표)
문화그룹 스콘(박준상 작가)
인턴(류지수, 박상언, 이석찬 인턴)

사업추진위원단
조태동 교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조태동입니다. 관심분야는 치유식물에 두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허브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도입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단의 역할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과 보존 속에서 실직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위원단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열정이 있어 그 속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동네를 돌아보며 변화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옛 사람들이 살았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걸어 다니며 운동이 되어 좋았습니다. 하하하. 사실 힘든 줄 몰랐어요.

다돌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억이 남는 것

저는 98년도에 강릉에 정착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니던 곳이 한정적이었는데 강릉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참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홍제동은 돌고 난 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강릉의 모습은?

도시재생에 있어 h/w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무엇보다 s/w부분에 집중을하여 실직적인 도움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강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뉴트로가 되어야 하는 것. 막연한 의미지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존이 도시재생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있는 것에서 새로움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동네의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미래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트로**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남대입니다. 강릉시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했으며, 강릉시 녹색도시 정책과장으로 관련된 업무를 2년간 했었습니다.

사업추진단의 역할을 말해주세요.

실무진들과 강릉시가 강릉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놓치기 쉬운것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업추진위원단
김남대 국장

다돌동은?

다돌동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관심갖기, 이해하기 부터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성화 계획 대상지 내의 마을을 탐방하며 지역 자산을 찾는 프로젝트이며, 현직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도시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어 가장 뜻깊은 자문 활동이었습니다.

다돌동할 때 기억이 남는 것

주문집읍, 성덕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곳은 아직도 50-60년대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어렵게 살고있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 추진에 힘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하면서 힘들었던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진들이 워낙 열심히 잘 해줘서 진행하면서 큰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강릉의 모습은?

다돌동을 하면서 동네마다 특색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의 복지에, 어떤 지역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모습, 이러한 특색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을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하는 강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 주민들이 밀려가거나 기존 주택을 보존하지 못하고 바꿔야 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라는점은?

센터 실무진들, 행정 공무원, 사업추진위원단 등이 다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 같이 지혜를 모은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인데 너무 삶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면 주변 환경에 소홀할 수 있고, 그렇다고 주변 환경에 너무 치우치면 삶과 복지에 소홀할 수 있으니 잘 조화롭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재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살이 마실테라'는 어떤 뜻이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해살이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며, 마실은 이웃에 놀러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테라는 지구를 뜻합니다. 말그대로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되 시골에 국한되지 않고 커다란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해살이 마실테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

관광아카데미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받다가 우연히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턱대고 찾아가 도시재생센터 담당자님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주민공모사업 취지와 맞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어려웠던 점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막상 공모사업을 직접 진행해보니 사업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힘들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전반적인 운영은 좋았으나 정산서류를 작성하는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이후에 추후 계획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품질 좋은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값에 팔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워서 직접 마련한 빈집을 좀 더 꾸며 마을에 오는 손님에게 판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추후에 주민공모사업에 지원할 팀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단순히 사업 지원금만 바라보고 공모사업을 지원하는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좋은 취지나 의도를 가지고 팀을 꾸리고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공모사업과 연계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될 때 지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누군가가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도시재생이란?

저에게 있어 도시재생은 내가 사는 마을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는 마을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 주민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동의 주제로 다양한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민공모사업 "해살이 마실테라"
최은정 대표

홍제쉬어가소는 어떤 사업인가요?

홍제동에 빈 공터가 많다는 팀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마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해서 '홍제쉬어가소'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홍제 쉬어가소의 네이밍은 대상지인 발락고개에서 모티브를 따와 정하게 되었는데요. 옛날부터 용이 승천하기 위해 숨을 발락거리며 고개를 넘어갔다는 설화가 있는 곳으로 가파른 고개를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 해서 '홍제쉬어가소' 라고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강릉시도시재생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가양성교육 심화과정을 함께 듣는 팀원 7명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교육생들 중 랜덤으로 배정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서먹서먹해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을줄 알았으나 다행히 다들 적극적으로 잘 단합이 돼서 진행상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주민분들 설득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원래 처음 의도는 홍제쉬어가소 이름처럼 쉬어갈수 있게 벤치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대상지가 시 소유였으나 담벼락은 주민소유여서 해당 주민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건 허락해주셨지만 벤치는 두게되면 소음 등 예상치 못할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를 절충하기 위해 벤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가볍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주민설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방법은?

좋은 취지를 진심으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사업이후에 주변 동네분들이 이쁘다 하면서 만족해하실 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지를 푸른색으로 색을 칠 했는데 이후 팀원 중 한분이 사업지 근처를 지나가다가 비슷한 색으로 칠한 집이 있는걸 봤는데 홍제쉬어가소의 색과 비슷한색으로 칠해놓을걸 보니 나름 뿌듯했습니다.

주민제안사업 "홍제쉬어가소"
고동환 대표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향후 새롭게 지원할 팀이나 센터에게 조언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본인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벽화를 진행하고자 할 때 미술과 관련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해당 전문가를 매칭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팀원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운점은 없었나요?

팀단위 사업에서는 목소리 큰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보면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팀원 모두의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제를 통해서 결과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단합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도시재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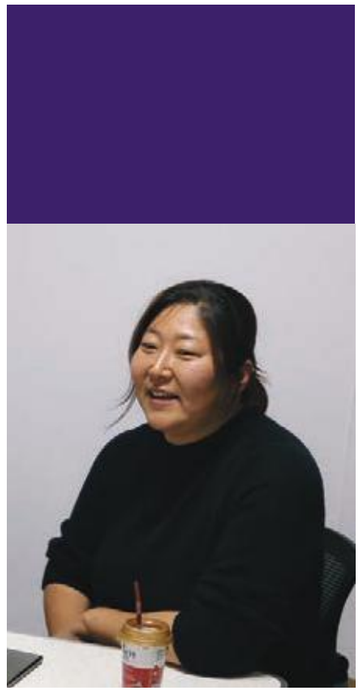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침체되어있는 마을이나 동네를 활력있게 만들 수 있는 활력소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모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나은 동네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이라 생각합니다.

마실와는 어떤 뜻이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마실와는 주문진으로 사람들에게 놀러 오라는 사투리입니다. '마실와'에는 각자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개인의 재능을 지역에 환원하고 싶으신 분들로 연령대는 청년층 반, 장년층 반 그리고 지역주민 반, 이주민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처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실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실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필요한게 장소였고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 "마실와"
김남희 대표

"마실와"사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실와"는 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2019년도에 설립되었고,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총 3가지로 줌씨네, 줌토리, 줌스쿨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줌씨네 사업은 주문진에 있는 사람들과 타지역 사람들을 엮기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을 운영한 사업이고 줌토리는 주문진만의 매력이 있는 주문진 스토리를 찾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줌스쿨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기 위해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프로젝트이며,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사업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홍보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인력이 따로 없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오셔서 수업 들으면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라는점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도시재생대학, 전문가양성교육과정을 센터에서 모두 수료를 했는데 이런 교육을 주문진에 사는 지역 어르신들은 받기가 어려워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도시재생 인재육성 및 전문가 양성 교육 거점을 도심지 외곽에 설치하여 누구나 제한없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업 때문에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12월 말에 철거가 됩니다. 이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끝나도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는 이어나갈 수 있게 행정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은 사람중심의, 사람을 위한 재생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세워 특정집단이 이익을 얻는 방식이였다면 지금의 도시재생은 다같이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공동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그룹 스콘은 어떤 단체인가요?

미술, 사진, 영상, 디자인, 글 등 여러 분야의 작가님들이 모인 팀이에요. 그룹 내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작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올해 함께 진행했던 사업들을 소개해주세요.

강릉의 마을(홍제동, 강남동, 성덕동, 포남동)을 돌아다니며 그 동네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마을지도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제동 마을지 제작을 위한 답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문화그룹 스콘이 결성된 후 처음으로 화합을 맞춰보는 사업이었고 수십 번씩 돌며 팀원들의 시각을 확인했어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를 느끼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사업을 진행하며 뿌듯하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진행한 과정이 뿌듯합니다. 책상에서 그리는 세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어요. 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을 쓴 주인이 궁금해 몇 번이고 찾아가 결국 만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문구를 썼는지 어떤 마음인지 들었어요. 결국 동네가 내는 목소리였지요.

강릉시도시재생센터에게 바라는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고민하고 연결하며 소중하게 풀어내는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만들고 싶은 강릉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이야기가 언제라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 도시재생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문화그룹 스콘"
박준상 작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에서 온 27살 류지수 라고 합니다. 저는 센터에서 주로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식지를 제작, 배포합니다. 이외에도 주민공모사업 운영지원, 강릉시 도시재생 로드맵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인턴 공고를 보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니 관련 분야와 직무에 관심이 생겨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소식지 제작 및 배포 업무를 만족스럽게 끝마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서요(웃음) 이렇게 맡은 일 하나하나 신중히 해나가면서 4개월 뒤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강릉 살이는 덤으로 챙겨가고 싶어요ㅎㅎ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류지수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박상언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박상언입니다. 강릉을 누구보다 좋아하며 강릉의 다양한 맛집과 이쁜 까페 탐방을 좋아합니다. 함께하는 인턴들과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로드맵구축사업(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 기획부터 운영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사업을 담당하여 함께 근무하는 센터장님과 코디님들의 업무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쇠퇴해가는 지역을 강원도 곳곳에서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 작게나마 도시재생 업무를 통해 문제점을 직접 찾아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로드맵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주민이 주도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 하고 싶습니다.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이석찬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이석찬입니다. 저는 저만의 맛집 지도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맛집 탐방러입니다. 강릉 지역 도시재생의 성공과 강릉 맛집 탐방 모두 이루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강릉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과 지역 도시재생 로드맵 구축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배웁니다. 저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어울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버넌스를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센터에 들어온 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에 놀라기도 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제 사고의 폭을 넓혀 이 기간이 끝나고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